

박사학위논문

청년층의 부채 현황과
부채상환 가능성 영향요인 분석

Analysis of Debt Status of Young People
and Factors Affecting Debt Repayment Possibility

상명대학교 대학원

생활환경학과 소비자학전공

김 태 은

2017년 8월

청년층의 부채 현황과

부채상환 가능성 영향요인 분석

Analysis of Debt Status of Young People
and Factors Affecting Debt Repayment Possibility

지도교수 양 세 정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상명대학교 대학원

생활환경학과 소비자학전공

김 태 은

2017년 8월

차 례

김 태 은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7년 8월

표차례	iv
그림차례	vii
국문 요약	viii

제 1 장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5
3. 논문의 구성	6

제 2 장 청년부채의 현황과 이론적 논의	8
1. 청년의 개념과 청년부채 지원제도 및 현황	8
1) 청년의 일반적 개념	8
2) 청년부채 지원제도 및 현황	10
2. 청년부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8
1) 부채에 대한 정의	18
2) 경제적 접근으로서의 부채관련 이론	19
3) 금융역량에 대한 이해	23
4) 심리적 편향현상에 대한 이해	25

제 3 장 청년부채 관련 변수 선행연구 고찰	28
1.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28
1)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부채부담지표)	28
2)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32

2. 금융역량과 부채행동관련 선행연구 고찰	35
1) 금융지식역량	35
2) 금융태도역량	39
3) 금융기능역량	43
3. 심리적 편향현상관련 선행연구 고찰	46
1) 주관적 경기전망	46
2) 위험수용성향	48
3) 자기과신	51
제 4 장 연구방법	53
1. 연구문제	53
2. 연구모형	54
3. 연구분석	56
1) 종속변수: 부채상환완료 여부, 부채상환 가능성	56
2) 인구통계학적 요인	57
3) 경제적 요인	59
4) 금융역량 요인	59
5) 심리적 편향 요인	65
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의 구성	68
1)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68
2) 인구통계학적 요인	69
3) 경제적 요인	71
4) 금융역량 요인	71
5) 심리적 편향 요인	75
5.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77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방법	77
2) 자료 분석방법	77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0

제 5 장 연구결과 **82**

1. 청년층의 부채현황	82
1) 부채보유 특성	82
2) 부채상환 특성	88
3) 금융역량 특성	90
2. 부채완납여부 관련 영향요인	94
1) 부채 완납여부에 따른 부채특성	94
2) 부채 완납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	99
3. 부채상환 가능성 관련 영향요인	103
1) 부채상환중인 청년 특성	103
2)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0
3)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2

제 6 장 결론 **116**

1. 요약 및 결론	116
2. 제언	119

참고문헌	124
------------	-----

설문지	133
-----------	-----

ABSTRACT	144
----------------	-----

표 목 차

<p><표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종류 12</p> <p><표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리현황 14</p> <p><표3>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지원내용 15</p> <p><표4>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청년 대출종류 및 지원내용 16</p> <p><표5> 2016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현황 17</p> <p><표6>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부채부담 측정 관련 지표 30</p> <p><표7> 선행연구의 주관적 부채상태 측정 방법 34</p> <p><표8> 김정현(2011)의 신용부채영역 중 지식 측정 문항 36</p> <p><표9> 김정현(2011)의 신용부채영역 중 태도 측정 문항 41</p> <p><표10>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 중 금융태도 측정 문항 41</p> <p><표11> 김정현(2011)과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식-기능 측정 문항 44</p> <p><표12> 선행연구의 금융태도-기능 측정문항 45</p> <p><표13> 선행연구의 주관적 경기전망 측정 문항 47</p> <p><표14> 선행연구의 위험수용성향 측정 문항 50</p> <p><표15> 본 연구의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측정 문항 57</p> <p><표16> 본 연구의 금융지식 측정 문항 61</p> <p><표17> 본 연구의 금융태도 측정 문항 63</p> <p><표18> 본 연구의 금융기능 측정 문항 64</p> <p><표19> 본 연구의 심리적 편향요인 측정 문항 67</p> <p><표20>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69</p> <p><표21> 인구통계학적요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70</p> <p><표22> 경제적 요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71</p>	<p><표23> 금융지식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72</p> <p><표24> 금융태도 문항 요인분석 73</p> <p><표25> 금융기능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75</p> <p><표26> 심리적 편향요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76</p> <p><표27>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0</p> <p><표28>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81</p> <p><표29> 조사대상자 총부채 83</p> <p><표30> 부채상환증인자의 총부채 84</p> <p><표31> 학자금 대출 유형 85</p> <p><표32> [졸업 후 부채]유형 86</p> <p><표33> [졸업 후 부채]이유 87</p> <p><표34> 부채 주상환자 88</p> <p><표35> 부채 연체경험과 이유 89</p> <p><표36> 주관적 상환 가능성 90</p> <p><표37> 금융지식 정답률 90</p> <p><표38> 금융태도 요인분석 92</p> <p><표39> 부채 완납여부에 따른 금융기능역량 비교 93</p> <p><표40> 부채 완납여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요인 특성 95</p> <p><표41> 부채 완납여부에 따른 경제적 요인 특성 96</p> <p><표42> 부채 완납 여부에 따른 금융역량요인 특성 97</p> <p><표43> 부채 완납 여부에 따른 심리적 편향요인 특성 98</p> <p><표44> 부채 완납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101</p> <p><표45>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104</p> <p><표46>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105</p> <p><표47>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 집단별 금융역량 특성 106</p>
---	---

<표48> 금융 역량 집단별 주관적 상환 가능성	107
<표49>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집단별 심리적 편향요인 특성	108
<표50> 심리적 편향 집단별 주관적 상환 가능성	109
<표51>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1
<표52>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4

그림 목 차

<그림1> 연구의 흐름	7
<그림2> 청년정책에서 규정되는 청년 나이	9
<그림3> 소비자신용의 분류	18
<그림4> 생애주기 가설의 소득-소비 곡선으로 살펴본 청년층 부채 ...	20
<그림5> 기간 간 소비선택이론	21
<그림6> 전망이론의 가치함수	26
<그림7> 본 연구의 연구모형	55
<그림8> 조사대상자의 부채보유 총액	83

국 문 요 약

청년층의 부채 현황과 부채상환 가능성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부채를 경험한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금융역량, 심리적 편향특성이 부채완납여부와 부채상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만34세 이하의 2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미혼이며,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12일 ~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재학 시 학기별 대출한 학자금 총액은 평균 1009.6만원 이었다. 이중 44.3%를 상환하고 현재는 562.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생활비는 대학 재학시절 165.6만원을 빌리고, 33%를 상환하고 현재 11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과 일반대출을 포함한 졸업 후에 빌린 전체 부채총액은 508.1만원이고 이중 28.4%를 갚고, 현재 363.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즉, 현재 청년들의 평균 부채 보유 총액은 총 1,037.1만원이고, 학자금은 이중 54%를 차지하며, 졸업 후 대출이 35%, 재학 시 생활비대출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부담이 여전히 가장 컸다.

또한, 대학 재학 시 학자금 대출 유형의 61.8%가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이 될 때까지 이자까지도 유예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

고 있었다. 또한, 졸업 후 부채를 경험한 대상자는 생활비(29.4%), 주거비(24.5%), 내구재 구입비(13.%) 명목으로, 65.7%가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1.8%는 신용카드 카드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모든 부채의 주상환자는 대부분 본인으로, 대부분이 연체경험은 없지만, 일부 연체의 사유 역시 생활비 부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재학 시 부채]부터 이루어지는 청년 부채문제는 단순히 학자금 문제가 아닌 생활비 문제를 상당수 포함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부채 완납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특성 비교에서 부채상환 완료집단의 경우 여성이 많고, 연령이 다소 높고, 직업안정성(상)에 해당하는 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직업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부채상환 완료집단]의 월평균 소득이 더 높았고, 더 많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부채완료집단의 돈과 부채에 대한 태도가 상환 중 집단보다 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미 완료를 하여 스트레스 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부채 완납집단에서 금융 지식과 태도의 실천력이 더 높았고, 자기과신 성향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채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남성일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님과 동거하는 집단에 비해 비동거하는 단독 1인 전세가구 일수록 부채 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청년 부채 문제는 주거안정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향후 5년 후 본인의 소득과 경제전망을 낙관할수록 부채 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셋째, 현재 부채상환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집단]의 경우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다소 높으며, 직업

안정성(상)의 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았고, 그에 따른 소득증가, 지출증가, 총자산 증가가 있었다. 또한, 지식과 기능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변수의 영향력을 조절한 상태에서는 연령과 금융기능이 영향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서는 남성일수록, 연령, 직업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었다. 금융역량에서도 평균 이상 집단일 경우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타변수의 영향력을 조절한 상태에서는 남성일수록, 돈과 부채의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금융지식과 기능의 실천력인 금융기능이 높을수록, 5년후 본인의 소득과 경기전망이 낙관적일수록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대학재학시의 부채경험이 있는 경우도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부담을 주는 부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완납여부와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정리하면, 부채 완납여부에는 성별과, 연령증가, 부모님과 비동거하지만 주거안정성이 어느정도 보장된 전세가구일 경우, 그리고, 경기전망을 너무 낙관하지 않을 경우 완납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상환하고 있는 자 중에서는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는 연령과 금융기능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주관적인 부채상환 가능성에는 대학재학시절의 부채경험이 있는 경우 부채상환 가능성에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성별과, 금융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실천력인 금융기능이 높을수록, 경기전망을 낙관할수록 상환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제언을 하면, 부채보유특성에서 나타나듯 은행권 대출이 이미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재학 시 부채]부터 이루어지는 청년 부채문제는 단순히 학자금 문제가 아닌 생활비 문제를 포함하는 만큼 졸업이후에도 청년을 위한 생계비 관련 중금리 대출 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채 상환 시 부채의 주상환자는 대부분 본인이었다. 청년 부채정책은 가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결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부채 완납여부와 상환가능성에 금융지식과 태도의 실천력을 나타내는 금융기능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부채상환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정책보다는 부채상환 중 이자지원 등 상환 기간 중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더욱 바람직하겠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의 제언을 하면,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직업의 안정성을 갖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소득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부채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재무적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졸업 후 대출]의 부채유형을 보면, 신용카드 카드론 사용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어쩌면, 자신이 거래하는 조건 금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편리성 위주로 대출을 받고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지식에서도 제2 금융 금리를 측정할 문항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금융 교육 시에는 금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산력을 높여주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부채완납 가능성과 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식과 태도의 실천력인 금융기능 역량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경우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력을 높일 수

제 1 장 서 론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대학재학시절 경험한 부채가 문간에 받들어 놓기의 심리행동처럼 다음 대출행동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한 학기, 한 학기 대출에 받을 들여놓는다면 돈과 부채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졸업 이후에도 일반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돈과 부채에 대해 지나치게 허용 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교육 내용을 담아야 하겠다.

셋째,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의 심리적 측면에서 제언을 하면,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주관적 경기전망을 낙관할수록 부채 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었다. 지나치게 낙관할 경우 미래시점의 가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이 아닌 현실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위험수용성향의 경우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의 대부분 위험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이용할 때에는 비교적 대출금리가 높은 개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과 금리비교와 계산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보완과, 금리비교 등의 교육 절충이 필요하다. 자기과신의 경우 부채완납집단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자기과신 성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채상환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자기과신이 아닌 자신감이나 신념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심리적인 지지역시 필요하다.

주요어: 청년부채, 부채완납, 부채상환 가능성, 금융역량, 심리적 편향

1. 문제제기

가계부채는 현 시점에서 가장 주요한 사회적 이슈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추이를 살펴보면, 양적, 질적으로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액은 2013년에 1,000조원을 넘어 2014년에는 1,025조원에 이르렀다. 2015년 이후 가계대출액의 전년 동기 증가율은 10%를 상회하면서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15년 1,138조원, 2016년 1,272조원, 2017년 1분기에는 1,286.6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계부채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2017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대출 917조 원 중 60%에 해당되는 55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외의 대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3%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3.3%로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은 가계경제의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지출 규모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활성화 저해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는 미래소득을 현재시점에서 당겨쓰는 일이다.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일생동안 매 시점에서 소득과 소비지출의 규모가 일치할 수는 없으며, 예측되는 생애소득을 토대로 일정수준의 소비지출을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소득이 소비지출 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기에 부채를 통해 소비지출을 하

며, 미리 사용한 부분을 중장년기의 초과소득으로 충족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가계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때, 이처럼 대출의 수요가 가장 높은 청년층의 경우 부채문제의 심각성이 더할 가능성이 있다.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생애주기 상 청년은 부채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청년층의 대출은 향후 늘어날 기대소득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재학시절의 학자금 대출현상은 생애 경제생활을 고려한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취업에 의한 소득창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출의사결정이 발생하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대출제도의 제공은 대출의 의사결정을 안이하게 내리게 할 여지가 있다.

그간 다양한 형태로 소규모로 이루어져왔던 학자금 대출은 2009년 한국장학재단의 설립과 함께 활성화되었다. 학자금 대출인원은 2009년 704,855명에서 2015년 917,50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장학재단, 20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체 전문대학 학생 수 697,214명, 대학 학생 수 2,084,807명, 대학원 332,768명, 총 3,114,789명으로, 대략 전체 대학생의 29.5%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규모 통계를 보면 2009년 2조 6,148억 원에서 점차 늘어 2015년에는 3조 1,964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출자의 규모나 대출금액 모두에서 증가추세이다. 황남희(2013), 박민주와 이희숙(2015)의 연구에 의하면 학자금 대출 주상환자가 학생 본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거와 달리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이 부모에서 본인으로 넘어오는 추세이다. 즉 대학생 30% 이상에게는 대학 재학 중에 발생한 학자금대출이 생애의 대출의 시작이 되는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과 생활비대출 외, 2015년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학생과 청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인 청년 햇살론 대출제도를 시작하였다. 이 제도를 통한 대출 규모는 2012년 197억 원에서 2016년 617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근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채상환의 원천이 봉쇄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즉 실업률이 높고, 취업이 되었다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는 청년층의 낮은 부채상환 능력으로 연결된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자료를 살펴보면 1990년대 20대(20-29세)의 실업률은 6.45%였고, 1998년 외환위기 때 최대치 11.4%의 실업률을 기록했었다. 2017년 4월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수준인 11.3%를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0-2017).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소비자의 신용거래 현황과 연체 및 변제특성 비교자료에 의하면 20대 중후반의 연체 경험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 2016년 3/4분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실적을 보면 전체 연령대에서는 위크아웃 신청자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29세 이하집단에서는 전년대비 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통해 청년층의 부채상환 가능성을 유추해 볼 때 우려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다수의 연구들이 가계부채를 다루어왔다. 백은영(2012)은 가계부채는 가계특성에 따라 질적, 양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특정계층의 부채문제의 심각성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선행연구들은 가계부채의 취약적 성향을 보이는 과소비·부채가계, 금융소외가계 등 특정가계

만을 대상으로 부채를 분석하기도 하였다(백은영, 성영애, 2012; 한동익, 최현자, 2012; 박종욱, 2016). 일부 연구에서는 청년부채나 학자금대출 경험이 있는 자에 한정하여 이들의 객관적 부채 이용 현황이나 주관적 부채 부담도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곽민주, 이희숙, 2015; 문하나, 2009; 이윤희, 임소현, 한유정, 2012; 황남희, 2013). 그러나, 청년층의 부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분석이나 부채상환 가능성을 살펴본 연구는 살펴보기 어렵다.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합친 청년 실신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청년층은 신용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점점 젊어지는 부채연령, 부채상환으로 저축여력은 부족해지고, 본인상환으로 부채부담이 늘어나는 청년부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채현황을 살펴보고, 부채완납여부와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채관련 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금융역량, 심리적 편향특성 등 경제, 사회, 심리학적 변인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청년층 부채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부채상환완료와 상환가능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봄으로써 청년층의 부채행태를 이해하고, 이들의 건전한 부채 운영을 위한 정부의 관련 정책수립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무관리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활용한 정책적, 교육적, 심리적 제언을 통해 청년 부채 해결에 방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부채를 경험한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금융역량, 심리적 편향특성이 부채완납여부와 부채상환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부채완납집단과, 부채상환 가능집단의 특성과, 부채완납과 부채 상환가능성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이를 토대로, 부채를 경험한 청년을 이해하고, 부채상환을 돕기 위한 정책적, 교육적, 심리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목적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를 경험한 청년들의 부채보유 특성과 상환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부채 문제가 이슈화되지만 청년 부채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청년부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부채완납여부에 따른 집단의 특성과 부채완납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채완납을 위해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채상환중인 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금융역량, 심리적 편향특성이 객관적,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영향요인을 밝히고, 정책적, 교육적, 심리적으로 청년들의 부채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논문의 구성

부채를 경험한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금융역량, 심리적 편향특성이 부채완납여부와 부채상환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구성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본 논문의 구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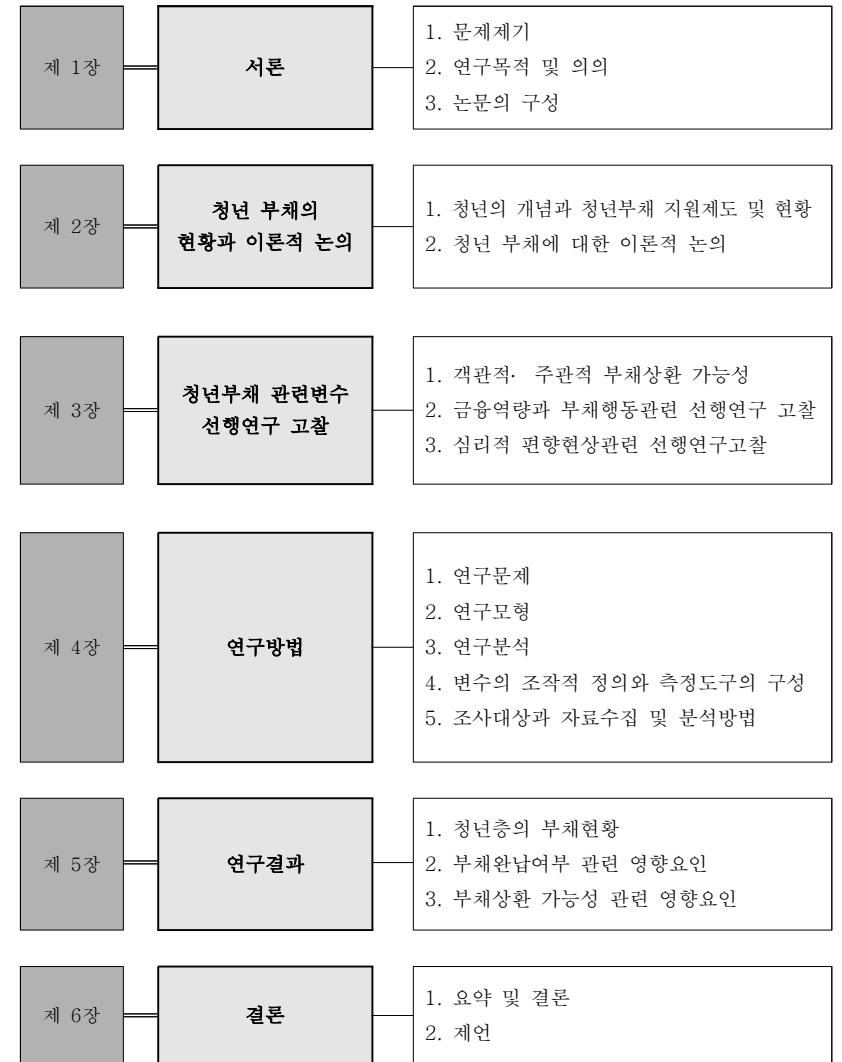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청년의 개념과 청년부채 지원제도 및 현황, 청년부채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청년부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와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먼저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태 측정을 위한 지표, 금융역량 측정을 위하여 지식, 태도, 기능 측정지표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고, 심리적 편향현상 측정을 위한 지표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들의 정의를 함께 기술하였다. 또한,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청년들의 부채현황을 살펴보고 청년특성(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금융역량, 심리적 편향)이 부채완납여부와 부채상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6장에서는 결론과 제언을 도출하였다.



<그림1> 연구의 흐름

제 2 장 청년 부채의 현황과 이론적 논의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대상인 청년의 개념과 부채 지원제도 및 현황 그리고, 청년부채를 다룬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년의 개념과 청년부채 지원제도 및 현황

먼저 청년의 개념을 살피고, 대학재학시절 경험하는 대표적 부채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그 외 청년이 이용 가능한 청년대출 지원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년의 일반적 개념

청년세대의 범위는 학자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발달단계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생애주기 관점에 따라 정의하기도 한다. 육체적 정신적 인간발달단계로 정의한 청년은 초기성인기(young adulthood)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20대 혹은 30대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독립적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을 하거나 자식을 두지 않으며, 사적인 관계나 삶의 방식에 여전히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Anthony Giddens, 2011). 생애주기(Life Cycle)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정한 순서에 의해 진행되는 아동, 청년, 성인기를 거쳐 노년으로 가는 단계적 변화를 말한다(김종인, 우주형, 이준우, 2007). 생애주기 안에는 대학진학, 취직, 결혼, 은퇴 등의 생애사건(life-events)이 연령단계별로 연결되고, 이는 가계 재무적 관점에서 자주 활용된다. 최근에는 생애 길이가 길어지면서

연구자나 연구 목적에 따라 생애단계를 구분하기도 한다(윤소영, 2010). 그러나 대부분은 세대의 구분은 생물학적 연령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법령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연령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청년지원제도가 생기면서 연령으로 구분하는 청년 연령의 기준은 다양해졌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은 법률로 정의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2조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한다. 이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다. 다만, 법 제 5조 제 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청년을 34세 까지로 보고 있다. 청년인턴제나 청년취업패키지 청년고용 지원 정책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5조에 근거하여 청년을 기존의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하였다. 한편, 청년 창업과 관련된 청년 나이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로 청년을 가장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로 범위가 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림 2> 청년정책에서 규정되는 청년 나이

청년세대를 연구한 이은희와 유현정과 이준영(2016)의 청년세대 연구에서는 청년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20대 정도의 나이 대에 속하는 남녀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대다수의 청년 거주에 필요한 주택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청년을 34세까지로 보고 있었다(이경애, 조주현, 2013; 최은영, 2014; 김보경, 2017). 결혼 지연으로 인한 미혼가구가 늘어나는 점과, 교육기간의 증가, 실업문제 등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부채가 있는 청년을 살펴보기 위해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5조 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자를 청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대학졸업시기 지연, 취업 지연, 결혼 지연(여성 초혼 연령 30.11세, 남성 32.79세. 통계청 2016년 기준)등으로 청년정책은 점차 청년 연령을 늘리는 추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청년의 연령을 늘려 연구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청년의 연령을 청년 대출과 관련된 정책에서의 대상자인 29세 미만(군필자의 경우 31세) 보다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확대 해석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 청년부채 지원제도 및 현황

2017년 금융감독원의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방안을 보면,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통해, 생활비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연체 채무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통한 채무조정 지원이 있다.

(1) 한국장학재단 제도

2005년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은 정부보증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이로 인해 학자금대출 수혜인원과 대출한도가 크게 확대되었다(황남희, 2013). 2009년에는 고등교육에 필요한 비용조달을 지원하고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 2월부턴 한국장학재단에 의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이후 학자금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학자금 지원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상환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이다.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 경우 선택 가능한 대출 종류로, 취업할 때까지 이자까지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이 대출은 2010년에 도입된 것으로 2015년 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56%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 상환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가계소득 8분위 이상일 경우와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군복무중이거나, 취업이 지연된 경제적 곤란자등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유예해주는 학자금 유예대출제도도 운영 중에 있다. 취업 후 학자금과 일반 상환 학자금의 가장 큰 차이는 취업할 때까지 이자까지 유예가 되는지 여부이다.

<표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학생 소득구간 8구간 이하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대출 불가)	대학생 소득 9구간이상 (55세 이하) (대학원생 대출가능)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자녀. 혹은 농업에 종사하는 본인 (대학원생 대출 불가)
등록금 대출 상한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전액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 상한액	학기당 최대 150만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대출 한도	등록금전액	대학(전문대 포함) 4천만원 5,6년제 및 대학원 6천만원	등록금 전액 농어촌융자로는 생활비 대출 불가
상환 방법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 최장 10년	· 2012년 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원금균등분할
금리	2017년 현재 2.5% 변동금리	2017년 현재 2.5% 고정금리	무이자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등록금: 입학금 + 수업료 등 (기숙사비, 졸업 앨범비 제외)

* 생활비: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2) 한국장학재단 현황

<표2>는 2009년 설립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리 현황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 도입되었고, 2012년부터는 취업까지 이자와 원금을 유예해주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이 일반상환학자금대출보다 증가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인원은 2009년 704,855명에서 2015년 917,50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는 522,847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189,832명, 농어촌출신학자금 대출자는 37,163명이고 나머지 167,659명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9,062명)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전환대출(158,597명)로 전환한 학생 수이다. 연체율여부를 살펴보면, 2012년 연체율이 5.21%이고, 신용 유의자는 40,419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 한시적으로 과거 고금리로 빌린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 시행 등 의 노력으로 2015년도에는 연체율이 3.65%로 신용 유의자는 19,783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표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리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액	-	845,586	1,087,334	1,514,968	1,781,154	1,638,590	1,370,549
	인원	-	232,448	303,792	510,052	590,746	585,407	525,284
저금리 전환대출	금액	-	-	-	-	-	97,195	49,232
	인원	-	-	-	-	-	15,082	9,062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금액	1,201,412	1,920,499	1,597,980	811,505	770,928	783,058	754,849
	인원	331,470	528,943	429,742	217,615	194,054	198,315	189,832
저금리 전환대출	금액	-	-	-	-	-	1,032,769	931,722
	인원	-	-	-	-	-	126,084	158,597
농어촌 출신 학자금 용자	금액	91,913	101,218	110,257	92,496	102,115	99,702	90,066
	인원	28,955	31,093	33,248	33,694	40,267	41,659	37,163
합계	금액	2,614,839	2,867,304	2,795,570	2,418,968	2,654,198	3,651,315	3,196,417
	인원	704,855	792,484	766,782	761,361	825,067	966,547	917,501
연체율	비율	3.26%	3.36%	4.97%	5.21%	4.35%	3.36%	3.65%
신용유이자	인원	22,142	26,097	31,363	40,419	41,691	23,231	19,783

출처: 한국장학재단 통계연보

(3) 서민금융 지원제도 중 청년 대출과 관련된 지원제도

서민금융 지원제도로는 창업·운영자금, 생계·주거자금, 저금리 전환, 채무조정제도 등의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서민금융 자금지원 대출은 정책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청년 대출과 관련된 지원제도 중 한국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학생 청년 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의 전환대출이 대표적으로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민금융진흥원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한 대출 지원한다. 그중 청년과 관련된 대출 종류로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이 있다. 이는 만 19세~ 29세(군필자 31세) 청년과 대학생 중 저 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 소득자(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를 대상으로 긴급소액자금용도로 지원되는 제도이다. 최대 1천2백 만원 까지 (연 최대 5백만원) 최대 13년 동안 (거치기간 6년 이내, 상환기간 7년 이내)로 연 4.5%금리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이다.

<표3>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지원내용

대학생·청년햇살론	지원 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금리
서민금융진흥원	만 19세-만 29세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자	1천2백만원 (연5백만원)	13년 이내	4.5%

②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과 '학업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자금 대출' 두 종류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환대출이란 학자금, 생계비등 충당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변제중인 청년·대학생이 은행에서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와, 청년층인 경우 연령이 29세(군필자의 경우 31세) 이하이면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4천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출자는 신청 제외대상이다.

<표4>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청년 대출종류 및 지원내용

구분	생활 자금 대출	고금리 전환 대출
지원용도	학업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이율 15%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
보증한도	최대 800만원 이내	최대 1000만원 이내
	두 개 합쳐 최대 1000만원 이내	
거치기간	최대 4년(군복무 예정자는 2년 추가가능)	
상환기간	최대 5년	최대 7년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연 5.4% 수준 (저 신용/차상위 계층 연 4.5%)	

청년들은 대학생 시절 2.5% 금리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시작하여, 그다음은 4.5%~5.4% 정도의 금리의 햇살론으로 추가 대출을 받게 된다.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대출을 주로 햇살론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총 2천만 원이 넘지 않고, 연체가 없을 경우 대체적으로 햇살론 대출 승

인이 이루어진다. 청년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제도의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이들보다 훨씬 고금리의 제 2금융권 신용대출이나 기타 사금융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청년부채 현황

청년·대학생 대출지원은 2012년 미소금융을 통해 긴급생활자금과 기존 고금리 채무에 대한 전환대출 사업을 실시하였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 규모는 2012년 197억 원에서 2016년 61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표5>의 2016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현황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전반적으로 워크아웃 신청자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29세 이하에서만 2/4분기에 비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8.8%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5> 2016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현황

(단위 : 명(%))

구분	'16년 2/4분기		'16년 3/4분기		증 감		누계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증감률	인원	비중
29세 이하	2,099	(10.8)	2,283	(12.0)	184	(8.8)	180,710	(13.2)
30~39세	5,391	(27.8)	5,268	(27.7)	-123	(-2.3)	488,285	(35.5)
40~49세	5,969	(30.8)	5,833	(30.6)	-136	(-2.3)	435,459	(31.7)
50~59세	4,238	(21.9)	4,105	(21.6)	-133	(-3.1)	210,662	(15.3)
60세 이상	1,686	(8.7)	1,558	(8.2)	-128	(-7.6)	59,202	(4.3)
합계	19,383	(100.0)	19,047	(100.0)	-336	(-1.7)	1,374,318	(100.0)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2016년 3분기 신용회복 지원 실적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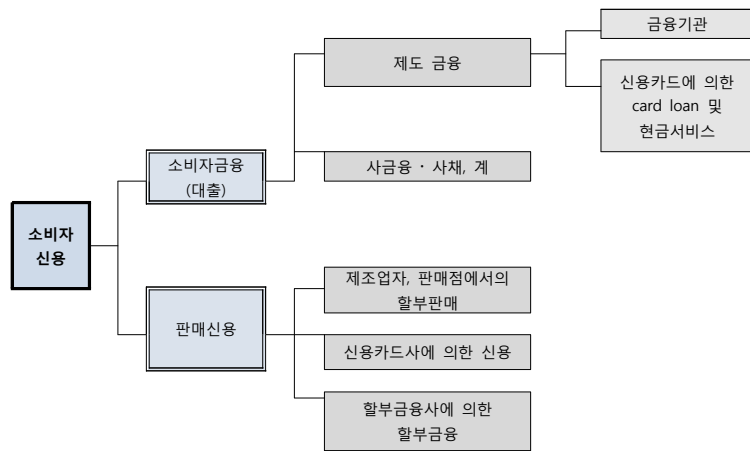
이처럼 부채 액수나 부채이용자수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청년 부채의 양적 지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인다.

2. 청년부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부채에 대한 정의

부채는 빚, 차용, 신용, 채무, 융자, 대출 등의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이기춘,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성영애, 2009). 가계부채는 크게 소비자 신용과 주택금융으로 구분된다. 소비자신용은 재화, 서비스, 금전 등을 장래에 이자를 첨가하여 갚기로 하는 약속과 교환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최현자, 성영애 2000; 김영신, 2004). <그림3>의 소비자 신용은 소비자금융(신용과 금전교환인 대출)과 판매신용(신용제공)으로 분류된다. 소비자금융은 다시 제도금융과 비제도 금융으로 나뉜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사, 제조업과 판매점에서의 할부판매로 제공하는 신용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와 할부 금융과 관련된 판매신용은 제외하고, 대출성격의 소비자금융부분만을 살펴보았다.



<그림3> 소비자 신용의 분류

2) 경제적 접근으로서의 부채관련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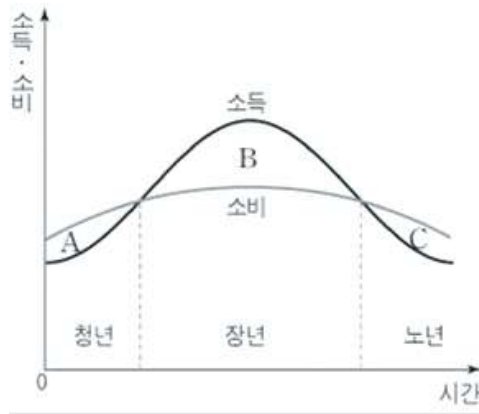
청년의 부채행동은 그 기간만을 위한 단순 의사결정이 아닌 생애주기 상에서의 큰 흐름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행동이다. 청년의 부채수요를 경제적 접근으로서의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 기간간 효용극대화 이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

(Permanent Income Hypothesis & Life Cycle Hypothesis)

소비나 저축 등 가계의 경제행위는 생애주기, 항상소득가설로 설명이 가능하다. 항상소득가설 또는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현재소비는 당기소득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소득 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김우영, 김현정, 2010). 생애주기 초반에 소득 수준이 낮아도 인적자본을 토대로 미래소득을 예상하여 소비수준을 부채를 통해 높게 유지할 수가 있다. 가계의 부채선택행동은 장기소비함수인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로 설명하기도 한다.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은 소득을 항상소득(미래 기대 평균소득)과 임시소득(예측하기 어려운 우연한 소득)의 합으로 보았다. 소비는 앞으로 기대되는 항상소득에만 영향을 받으나, 임시소득이 (+)인 경우 저축을, (-)인 경우 부채를 통해 안정된 소비흐름을 유지한다. 고소득의 임시소득이 저소득 보다 크므로 임시소득이 저축이 될 경우 임시소득 차이에 따라 가계의 항상소득에 따라 격차가 생기게 된다(유경원, 이혜은, 2010).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항상소득은 현재소득에 유추하여 측정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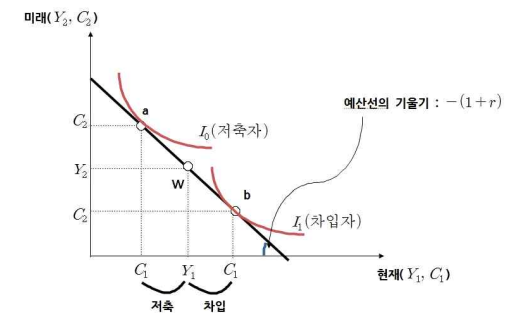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Ando &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가계는 일생동안 소비를 해야 하지만 소득은 일정기간만 얻게 되면서 소득과 소비가 늘 똑같을 수 없다고 보았다(양세정, 2010). 가계의 최적소비는 가계가 차입 및 저축을 통해 소득과 소비간의 차이를 메워 전 생애 소비를 평준화함으로써 실현된다. 여기서 소득은 매 기간에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지고 태어났거나 축적한 부를 포함하여 말한다. 즉, 생애주기가설은 자산도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본다. <그림4>처럼 가계의 항상소득과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생애주기 전반기에 해당하는 청년기에는 소득이 지출보다 적기 때문에 원활한 소비흐름을 위해 부채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최적소비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림4> 생애주기 가설의 소득-소비 곡선으로 살펴본 청년층 부채

(2) 기간간 소비선택 이론(Intertemporal Consumer Choice theory)

Fischer(1930)의 기간간 소비선택 이론은 전 생애 이용 가능한 예산 제약 하에서 ‘시간의 선호’에 따라서 부채와 저축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사람들은 현재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고려해서 현재의 소비와 저축을 결정한다. 시간을 현재·미래 두 기간으로 단순화하여 볼 때, 현재 소비를 늘리면 미래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현재의 소비를 줄이면 미래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므로 사람들은 기간 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림5>와 같이 현재소득(Y_1)보다 현재소비(C_1)이 작다면 저축을 하는 사람이고, Y_1 보다 C_1 이 크다면 현재소득에 비해 현재 소비가 큰 경우로 부채를 통해 현재의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경우이다. 부채행동을 하면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나 미래의 소비는 미래소득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다. 현재시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 쓰는 부채 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각 시기마다 향후 소득의 변화, 이자율의 변화, 물가의 변화로 가계의 부채규모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게 된다.



<그림5> 기간간 소비선택이론

요약하면, 이 두 가설은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 현재소비, 미래소비의 중요도가 다르고, 현재소비가 미래소비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대출을 통해서 해결한다. 또한, 부채행동은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이 적은 청년기에는 돈을 빌리고, 장년기에는 그것을 갚고, 노년기를 위해 저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단기소득이 아닌 미래의 소득이나 자산을 포함한 항상소득이나 생애소득을 가지고, 저축이나 부채행동을 통해 평생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들 가설로는 청년층의 생애 주기상 대출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과거와 확연히 다르게 점점 불안해지는 미래소득으로 생애주기가설이나 항상소득가설에서 효용극대화를 위한 선택 자체에 위험부담이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가설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능력을 전제하고, 금융신용시장이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의 금융시장은 특히 청년의 경우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신용실적이 없어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불합리한 신용조건으로 대출을 받거나 혹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carroll, 2001; deaton, 1992; 심영,2015). 따라서, 이론상 청년 대출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대학생 시절부터 학자금, 생활자금등의 부채 경험이 증가하고, 본인부담의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등 선호가 아닌 어쩔 수 없는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부채상환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3) 금융역량에 대한 이해

개인의 금융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 등의 사회적·행동적 요인을 포함하는 용어로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과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역량 강화 정책은 크게 미국형과 영국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손지연, 2015), 영국에서는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라는 용어를 택하여 금융역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FSA(2005)의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은 재무관리지식, 기술, 태도가 결합되어 재무관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각 요인에는 개인의 경험이나 경제형편, 성격이 반영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보다 더 폭넓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정의하고 있다(김정현, 2011). 즉,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정적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능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금융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융이해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OECD, 2014). 2008년 OECD산하 특별기구로 설립된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는 경제·금융교육과 금융이해력 측정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서베이 문항을 개발하고 있다. OECD/INFE는 금융이해력을 올바른 재무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재정적 복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식,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의 조화로 정의 내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이해력, 금융역량, 소비자 역량,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등

다양한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결국, 개개인의 금융선택이 미래의 재정 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데 맥을 같이하고 있다. 개개인의 능력향상 측정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2003년부터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측정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OECD/INFE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2012년에는 한국은행이, 2014년에는 금융감독원이 각각 실시하였고, 2016년부터는 통계청 승인을 얻어 2년 주기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이해력 정의는 OECD/INFE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재무결정을 내라고 궁극적으로 재정적 복지를 달성하는 데에는 금융지식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기춘 외 (2007)에서 역량 개념을 소비자학에 도입하여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문제를 인식하고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소비자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배순영과 천현진(2010)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소비자 역량지표를 개발하였고, 소비자 역량은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잠재적, 실천적 능력으로 금융, 거래, 시민역량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정현(2011)의 연구에서는 건전한 소비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태도, 지식, 기능의 총체로 정의하였다. 그 외 재무관리영역 중에서도 보험이해력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있는 이은영과 조혜진(2016)의 연구가 있다. 이희숙과 광민주(2016)는 신용·부채관리 역량만을 부분적으로 조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역량과 이해력 모두 재정적 목표 및 복지 달성을 위해서 단순 지식 함양이 아닌, 지식, 태도, 기능의 총체로 이해할 수 있다. 지식이란 특정 영역에 대하여 잘 알고 이해하는가, 태도는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준비된 마음가짐, 기능은 태도와 지식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실천적 영역을 의미한다(김정현, 2011). 본 연구에서는 금융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금융역량이란 금융소비자가 급격히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전 생애에 걸친 원활한 소비생활을 위해 올바른 재무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의 총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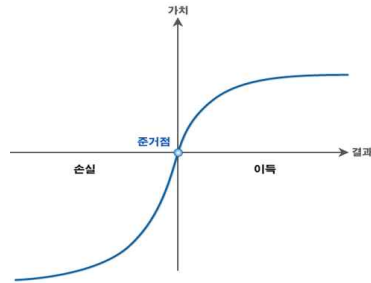
4) 심리적 편향현상에 대한 이해

전통적 경제이론에서의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반면 Simon(1978)은 행동경제학 연구에서 현실적으로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아도 만족할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목표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았다.

전통경제학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확률분포를 추정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기대효용이론이라고 한다. 여기서 효용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기댓값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나혜림, 2016 재인용). 만약 기대수익과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기댓값이 큰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회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ahnemna과 Tversky(1979)는 사람들은 기대효용이론처럼

기댓값이 큰 일관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들이 반영되어 일관되지 않고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전망이론에서 위험을 동반한 결정을 내릴 때의 의사결정을 연구하였다. <그림 6>에서처럼 준거점이 반드시 0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심리적으로 이익과 손해의 중립지점을 의미하며, 준거점을 기준으로 이득과 손실을 판단한다. 또한, 이득과 손실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상황은 위험이 적은 선택을 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6> 전망이론의 가치함수

특히 재무적 의사결정은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인 결정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의사결정의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지만, 근시안적인 결정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 편향현상이 자주 발생한다(FCA, 2013). 이런 재무의사결정과정의 심리적 편향현상은 행동 재무학을 발전시켰다. 행동 재무학은 비합리적 행동역시 나름 체계가 잡힌 채 반복된다는 것을 밝히고 심적 오류에 대한 유형을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소현, 2009). 소득, 자산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요인 외에, 부채행동을 하는 내적요인에 대해서도 관

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지섭, 2014; 김민정·이하나, 2017; 심영, 2017). 미래소득을 현재로 끌어 쓰는 부채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앞으로의 소득 수준과 전망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 주관적 경기전망이란 전망하는 주체의 개인적 관점이나 의견을 기초로 하여 미래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이윤수, 우석진 2011; 심영 2017). 가계는 소득, 자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나 우려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김기욱, 이승신, 1990) 주관적 경기전망은 부채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편향 현상이다.

또한, 부채행동은 이자 상환 부담과 미래의 불확실한 소득에 대한 위험 수용성향이 반영될 것이다. 위험수용성향이란, 감내 가능한 손실의 크기가 사람마다 달라지는 심리적 특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의 크기를 말한다(차경욱, 2014). 위험수용성향이 높다는 것은 잠재적 손실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위험수용성향에 따라 부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를 지나치게 과신하여 믿는 행동 또한 부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무 설계에서 자기과신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주소현, 2009) 판단능력이 과하게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제 여건 등의 기대나 전망에 대한 믿음과, 불확실성 하에서 대출을 하게 되므로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를 살펴볼 수 있는 위험수용성향, 과도한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과신 성향을 통해 부채행동의 내적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청년부채 관련변수 선행연구 고찰

1.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부채는 결국 부채상환이 가능한가가 핵심이고, 이를 위해 부채상환 가능성을 측정해야 한다. 부채 행동의 결과는 객관적·주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여러 연구에서 객관적 경제복지 측정은 소득, 소비, 부채, 자산의 기본적 요소들과, 이들 각 요소들을 결합하여 산출하는 재무비율을 측정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안창희, 정순희, 2006; 주소현, 차경욱, 김민정, 김소연, 2016). 또한, 동일한 객관적 현실에 놓였다 하더라도 각자의 경험, 기대치 등에 의해 현실이 다르게 경험되면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다르게 나타난다(이승신, 2012). 황덕순(1993)은 경제적 만족도의 평가는 주관적 객관적 지표가 모두 중요하므로 두 측면이 같이 고려되어야 종합적인 재정복지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1)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부채부담지표)

부채상환능력의 판단은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을 측정하여 부채상태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재무 설계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재무비율은 현금 흐름과 자산 측면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현금 흐름지표로는 가계수지지표, 위험대비지표, 단기부채부담지표, 저축성향지표등이 있으며, 자산부채상태 측면의 지표로는 중기와 장기 부채부담지표, 투자성향 지표, 유동성 지표 등이 있

다(양세정, 주소현, 차경욱, 김민정, 2013). 선행연구에서 부채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단기, 중기, 장기 부채 부담지표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은영과 허은정(2005)은 삼성금융연구소에서 조사한 2003년 가계금융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채보유가계의 연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가계의 총자산대비 부채부담은 가계의 연체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총자산대비 부채부담이 클수록 연체확률과 연체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단기적 부채부담정도를 측정한 월 소득 대비 월부채상환액의 경우 연체확률에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연체빈도에는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성영애(2006)는 한국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광역시 이상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가계 부채구조를 분석하였다. 객관적 부채부담지표로 단기·중기·장기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광민주와 이희숙과 김민정(2012)은 2011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관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객관적 부채부담지표로 월평균 지급이자 및 상환액과, 성영애(2006) 연구와 마찬가지로 단기·중기·장기 부채부담지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동익과 최현자(2012)는 통계청의 2011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창출능력에 따라 금융소외가계를 무직가계, 고용불안가계, 고용안정가계로 구분하고 이들의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월평균 부채상환액/월평균 가계소득을 단기부채부담지표로, 총부채/금융자산은 중기부채부담 지표로, 총부채/총자산을 장기 부채부담지표로 활용하였다.

박종욱(2016)연구에서는 채무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채무상환 능력요인, 심리적 요인, 역량요인을 포함하여 금융채무 연체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중 채무상환 능력요인으로 가계수지지표(월평균 생활비/월평균 가처분소득)와 단기부채부담지표(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처분소득)는 연체여부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상자금지표(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중기부채부담지표(총부채/금융자산), 장기부채부담지표(총부채/총자산)는 연체여부와 관련된 의미 있는 측정지표로 나타났다.

<표6>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부채부담 측정 관련 지표

채무상태 평가지표	채무비율	이은영· 허은정 (2005)	성영애 (2006)	박민주· 이희숙· 김민정 (2012)	한동익· 최현자 (2012)	박종욱 (2016)
부채부담 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가계소득	0 (연체확률유 의성없음연체 빈도:유의함)	0	0	0	0 (유의성없음)
	총부채/ 금융자산		0	0	0	0
	총부채/ 총자산	0	0	0	0	0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지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이자비용 차감 전)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로 자신의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 매달 소득에서 원리금을 갚는 비율이 40%가 넘게 되면 부담이 높은 한계가구로 본다. 즉 한계가구는 원리금 상환액비율(DSR=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부실 위험 평가와 관련한 판정지표로 가계 부실위험지수 (HDRI: Household Default Risk Index)를 개발하여 위험

가구 판정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측면(원리금상환비율)과 자산(부채/자산비율)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는 총자산과 총부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HDR = [1 + (DSR - 0.4) + \{1 + (DTA - 1)\}] \times 100$ 으로 매달 소득대비 부채를 갚는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DTA(총부채/자산평가액)가 100%인 값으로 하여 100을 초과하는 가구로 평가한다. 이 지수는 여타 기준보다 하우스푸어, 과다채무가구, 원금일시상환 가구 등 특이가구를 더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한계가구는 단기부채부담지표이고, 가계부실위험지표는 단기와 장기부담지표를 합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현자와 이희숙과 양세정과 성영애(2003)연구의 부채부담 지표로 선행연구에서 부채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던 단기, 중기, 부채부담지표 중 중기부채부담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청년의 경우 금융자산이외의 자산이 많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지므로, 중기부채부담지표와 장기부채부담지표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단기 부채부담지표의 경우 청년 시기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이 유동적이며, 대학 재학시절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유예될 수 있으므로 매월 지출해야 하는 부채상환액 측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기부채부담지표의 준거기준은 연구자마다 다른 값이 제시되고 있다. 최현자와 이희숙과 양세정과 성영애(2003)의 채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채무상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준거기준을 10배미만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무 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적절

한 가계재무 지표 값을 조사한 양세정과 정지영(2010)의 연구에서는 4-5배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청년의 경우 사회초년생이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금융자산이 많아질 수 있는 연령대이므로, 최현자등(2003)에서 제시한 준거기준 10배미만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2)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선행연구에서 전반적인 가계재무 연구를 할 때에는 만족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부채 연구에서는 주관적 평 가시 만족도 대신 부담도 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은영과 허은정(2005)은 삼성금융연구소에서 조사한 2003 가계금융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채보유가계의 연체경험 및 연체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부채가계 특성 조사에서 사용된 주관적 부채 부담도는 상환부담 거의 없음, 부담되나 상환가능, 부담되며 상환 불가능한 3점 척도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성영애(2006)는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광역시 이상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부채구조를 연구하였다. 주관적 부채부담은 부채상환이 가계의 부담스러운 지출항목 1순위 인지의 여부로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곽민주와 이희숙과 김민정(2012)은 통계청의 2011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1년 동안 부채가 증가한 가계를 대상으로 부채의 주관적 부채부담에 따른 가계특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때 주관적 부채부담 측정은 가계금융조사에서 이용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 입니까?’ 라는 단일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한동익과 최현자(2012)의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1 가계금융조사를

활용하여 금융소외가계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때, 주관적 부채부담 측정문항은 총 2문항으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3점 척도로 묻는 문항과 매월 지출되는 원금과 이자가 몇%이상이면 생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직접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김시월과 조향숙(2014)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단독가구 부채유형이 가계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계재정 만족도는 주거상태나 주거재정 환경, 경제적 관련 재정상태 만족도 2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부채부담도 측정문항은 대부분 1-2문항의 비교적 단일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은영과 허은정(2005)의 부채상환 가능성에 대한 부채부담정도 문항과 곽민주와 이희숙과 김민정(2012), 한동익과 최현자(2012)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정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부채가 있음에도 전반적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김시월과 조향숙(2014)에서 사용된 경제상태만족도를 포함하였다.

<표7> 선행연구의 주관적 부채상태 측정 방법

연구자	분석자료	측정 내용	측정문항
이은영·허은정 (2005)	삼성금융연구소 가계금융행태조사	부채 부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부담여부 ① 상환부담 거의 없음 ② 부담되나 상환가능 ③ 부담되며 상환불가
성영애 (2006)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주관적 부채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항목 중 _님께서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에 대해 모두 답해 주십시오. ① 식비(식료품비) ② 의료비 ③ 교육비 ④ 주거비(관리비, 월세등) ⑤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⑥ 차량 유지비 ⑦ 경조사비 ⑧ 통신비 ⑨ 보험료, 국민연금 ⑩ 주택마련자금 ⑪ 가족이나 친지보조 ⑫ 세금이나 공과금 ⑬ 교통비 ⑭ 자녀용돈 ⑮ 없음 ⑯ 기타
곽민주·이희숙·김민정 (2012)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부채 부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부채상환기간 ■ 1년 후 예상 부채증감 ■ 1년 후 부채증가원인
한동익·최현자 (2012)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부채 부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부담이 없다 ② 약간 부담스럽다 ③ 매우 부담스럽다 ■ 매월 지출되는 원금과 이자가 몇% 이상이 되면 생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가계소득의 □□%)
김시원·조향숙 (2014)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자료	심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상태 ① 극히 드물다 ② 가끔 있다 ③ 종종 있었다 ④ 대부분 그랬다
		가계 재정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상태나 주거재정환경/ ■ 경제적 관련 재정상태 ① 매우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 금융역량과 부채행동관련 선행연구 고찰

각 개인은 더 많은 복잡한 재무 선택 요인 중 현명한 재무결정을 위한 금융기술을 필요로 한다(Annamaria L. and Peter T. 2009). 금융환경이 변화하면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역량의 내용도 변화한다(손지연, 이경아, 2014). 현재의 금융환경은 가계부채가 가장 큰 이슈이다. 재무문제 중에서도 특히 부채문제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부채를 보유한 각 개인의 부채관련 지식과 기능, 태도는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지식, 태도, 기능 역량의 측정방법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금융역량 측정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금융지식역량

박창균과 연태훈과 허석균(2016)의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금융지식과 금융행태에 대한 실증연구에서처럼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부채조달을 머뭇거리거나 과도한 부채부담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지식은 개개인의 재무복지를 위한 중요한 변수이다. 금융교육, 금융정보제공에서도 지식은 중요한 요소이다.

금융역량관련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문항은 OECD/INFE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2년에 한번 씩 조사되고 있는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와 김정현(2011)의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연구이다. 김정현(2011) 척도는 수입과 지출의 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노후설계,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의 6가지로 분류하였고, 델파이조사로 내용요소를 선정하고, 문항 검증과정을 거쳐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완성하였다. 김정현(2011) 척도를 기준으로 한 연구로는 김민영과 주소현(2013), 이희숙과 곽민주(2016), 박종욱(2016) 등이 있다. 대표적 척도인 금감원 금융이해력조사와 김정현(2011) 척도 중 부채관련 역량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신용·부채 지식 척도

<표8>은 김정현의 척도 6개 하위영역 중 신용·부채관리 지식영역 문항이다. 부채수요이론으로 설명되는 기본적인 지식역량 내용으로 신용사용의 이익과 비용, 신용사용의 현재와 미래와의 관계, 연체이율과 신용사용 기간 이해가 있다. 이외에 신용과 관련된 지식으로는 신용카드사용 시 유의점, 신용등급, 신용도 높이는 법, 연체이해, 신용회복지원제도 이해 등이 있다.

<표8> 김정현(2011)의 신용부채영역 중 지식 측정 문항

측정	키워드	문항
기본 지식 측정	신용사용의 이익과 비용의 이해	신용이나 부채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와 이자이다
	신용을 이용한 현재 욕구 충족과 미래소득 관계 이해	신용을 이용하면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미래의 소득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부수수료와 연체이율의 이해	할부를 이용하거나 연체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
	신용사용기간, 월상환액, 총상환액 간 관계의 이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신용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은 더 많이 든다.
특정 지식 측정	신용카드 사용상 유의점 이해	신용카드 분실 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신용등급의 이해	소득수준과 자산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면 신용등급도 비슷하다.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의 이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모두 해지하면 내 신용등급은 바로 올라갈 것이다.
	지속된 연체의 결과 이해	한 은행에서 대출상환을 계속 연체했다면, 다른 은행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나의 신용생활은 어려워진다.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해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대신 부채를 갚아주는 제도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이해력 조사에서는 물가상승률, 이자계산(무이자, 이율, 복리)의 개념위주 일반 금융지식내용을 측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수익, 인플레이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총 7문항을 측정하였다.

(2) 기타 지식관련 선행연구

그 외에도 전반적 재무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재무지식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조동필과 양세정(2003)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성인가계를 대상으로 재무지식 기초, 예금, 주식·부동산, 신용·부채, 세금, 보험, 연금으로 나누어 재무지식 20문항을 0,X로 측정하였다. 신용·부채관련 측정문항은 ‘담보가 없으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와 ‘서명된 신용카드의 분실 신고 전 60일 이내의 부정사용(제3자의 사용) 금액은 전액 면책 받을 수 있다’의 총 2문항 이었다. 신용·부채부분은 0.444점으로 정답률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namaria L. and Peter T.(2009)는 미국시민을 대상으로 부채이해력, 재무경험과 부채상환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현재의 이자율로 대출액이 두배 되는 기간을 묻는 복리의 법칙, 이자를 내면서 부채를 없애는데 걸리는 시간, 매월이자와 1년 이자액수 비교 총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개별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 수수료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카드 소지자가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소비자원에서 성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를 발표하는데, 손지연(2015)은 이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소비자역량 향상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중 신용·대출부분 관련 지식문항은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월 평균 가계소득의 30% 이상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나 채무정리·자기파산을 경험한 소비자의 경우 개인 신용등급 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은 편이었다.

박창균과 연태훈과 허석균(2016)의 연구에서는 만 20세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식을 기초지식과 심층지식으로 나누어 이자율, 복리, 물가상승률, 시간에 따른 가치의 할인의 기초지식문항 4개와 8개의 심층문항으로 분류하고, 기초지식문항은 1점, 심층문항은 2점을 부여하여 금융수준을 측정하였다. 기초지식문항중 이자율 문항 정답률은 61.3%, 복리적용 이자율 정답률은 52.3%, 물가상승률에 따른 구매력 질문은 50.4%로 기초금융지식 점수는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채권, 위험분산, 펀드 등등의 심층금융지식 문항은 그보다 더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정운영과 김은미(2016)는 2014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자료를 통해 기초 및 심화 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른 금융자산 보유의 다양성을 살펴본 결과 기초이해력문항은 물가상승률, 투자위험대비 수익률, 분산투자, 이자율, 예금이자 총 5문항의 정답률은 50% 수준이었다. 심화이해력 문항(채권, 펀드, 배당금, 퇴직연금 등)의 정답률은 박창균과 연태훈과 허석균(2016)의 연구처럼 기초이해력 문항점수보다 더 낮은 20-30% 수준이었다. 즉, 단순 예 적금의 경우 금융이해력 수준과 무관하였고, 보장성 보험이나 직접 투자 상품의 경우 심화력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경우 보유확률이 높아졌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전반적 재무지식 기본측정문항으로 주로 물가상

승률, 이자, 이율, 복리 등에 대한 문항이 측정되었다. 또한, 신용 부채와 관련한 문항은 연체, 수수료 비용, 신용등급, 대출시 담보물건, 신용회복 지원제도, 신용카드관련 문항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금융지식 측정 문항으로 부채관련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기본지식인 돈의 시간 개념과 물가상승률, 이율에 대한 문항과 투자위험과 수익률계산문항을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부채지식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부채관련 지식 키워드로 제시된 연체,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포함하여, 정부대출 지원제도, 제도금융권 금리, 대출상환 방법을 수정 및 추가하였다.

2) 금융태도역량

재무관련 행동연구에서 돈에 대한 태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김경자, 2003; 우석봉, 2006; 서인주, 두경자, 2007; 주소현, 김정현, 2011)가 있고, 특정영역 태도연구를 위해 특정 영역 태도만을 측정한 연구(허경옥, 2002; 김영신, 2004; 최윤선 2015; 이희숙, 광민주, 2016; 박종옥, 2016)가 있다. 본 연구는 부채라는 특정영역에 대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좀 더 확장된 형태의 금융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돈이라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기 위하여 돈과 관련된 태도 척도와, 부채행동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살펴보았다.

(1) 일반적인 돈에 관련된 태도 척도

금융태도 외에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돈에 대한 태도도 객관적 주관적 부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Klontz, B. and Klontz, T.(2009)는 돈에 대한 신념체계를 Money Script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연극의 대본을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어린 시절 형성된 돈에 대한 태도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서인주와 두경자(2007)는 대학생 소비자의 화폐사용태도와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재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재정관리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돈의 사용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인 돈에 대한 태도 역시 재무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돈에 대한 대표적인 태도측정 척도로 Yamauchi&Templer(1982)의 Money Attitude Scale이 있다. 이는 힘/특권, 보유/시간, 불신, 품질, 불안으로 태도가 구분된다. 또한, Tang(1992)의 Money Ethic Scale은 선과 악, 예산, 성취, 존경/자아 존중감, 자유/힘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재경(2016)의 돈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연구가 있는데, 정서적요소와 행동적 요소, 인지적 요소를 선호와 배척, 신중함, 고급지향, 지위지향, 걱정, 회피의 총 7차원으로 분류하여 총 2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 대표적 부채태도 관련 척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김정현(2011)과 금융이해력 척도 중 태도부분을 살펴보겠다. 먼저 김정현(2011)의 신용과 부채 태도 척도는 신용에 대한 허용도, 신용사용의 중요성, 성실부채상환, 연체 등에 대한 태도, 신용정보관리 인식, 신용도 향상 노력, 충동적 신용사용,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표9> 김정현(2011)의 신용부채영역 중 태도 측정 문항

측정	키워드	문항
기본 태도 측정	신용에 대한 허용도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을 빌려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미래소득 흐름을 고려한 신용사용의 중요성 인식	지금 신용을 사용하면 미래의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성실한 부채청산에 대한 태도	매달 조금씩 갚기만 하면, 부채청산이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다.
	연체 및 신용불량에 대한 태도	제 때 갚지 못한 빚이 있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그것부터 갚아야 속이 편하다.
특정 태도 측정	신용정보관리의 중요성 인식	나의 신용정보는 나의 재산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므로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신용도 향상 노력의 필요성 인식	신용도가 낮아도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충동적 신용 사용에 대한 태도	충동구매 때문에 빚을 지는 사람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소비자 파산에 대한태도 (도덕적 해이)	과도한 빚 때문에 파산자가 되더라도 결국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이해력 척도는 기본적인 금융태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내용과 돈에 대한 태도 총 3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10>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 중 금융태도 측정 문항

측정	키워드	문항
기본 태도 측정	현재가치	나는 현재를 위해 살고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미래가치	
	현재가치	나는 돈을 장기간 저축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출하는 것에 더욱 만족감을 느낀다.
	미래가치	
돈에 대한 태도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3) 기타 부채태도관련 선행연구

그 외에 채무관련, 부채관련 태도 측정 연구들을 살펴보면, 허경옥(2002)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소비자를 대상으로 채무, 채권, 보증, 채무면제 부채행동에 대한 경험이나 태도를 분석하였다. 태도는 빚내는 것에 대한 태도, 꼭 갚는지 여부의 채무 이행태도, 꼭 받는지 여부의 채권 이행태도, 보증에 대한 태도, 어쩔 수 없는 채무 면제 태도, 보증채무 면제 태도로 측정하였다. 채무이행에 대한 소비자 태도 차이 검증결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빚을 내는 것에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꼭 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가진 소비자일수록 돈을 갚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보증제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 경우 채권이행에 더 의지가 있었다. 빚을 갚으려는 채무이행의지가 낮은 경우 보증제도에 부정적이었다.

조혜진과 최현자(2006)의 연구에서는 만 20세 이상 신용경험이 있는자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 200명을 대상으로 신용과다 사용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신용과다 사용 심각도를 고위험, 위험, 잠재위험, 무위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돈에 대한 태도는 욕구충족 수단, 성공척도, 강박적 태도 등의 측면을 담아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고위험 집단은 돈에 대한 강박적 태도를 지니고, 재정상태인지 부족, 무관심형 지출습관, 투기성향 등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성영애와 정희영(2008)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에 대한 태도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한 내담자와 인천지역 학부모들의 설문조사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발한 신용 결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신용사용에 대한 허용적 태도 문항 총 5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금융채무불이행자 집단이 신용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인 편이었다.

최윤선(2015)의 연구에서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채에 대한 태도요인과 기타요인들이 학자금 대출 이용횟수와 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부채에 대한 태도를 부채를 지게 되는 목적과 해당 목적을 위해 돈을 빌리는 태도까지 확대하여 분석하고자 총 11가지 부채에 대한 태도 문항을 선정하였다. 태도 요인 중에서 교육을 위한 부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자금 대출 이용 횟수와 대출액이 더 많았다.

이희숙과 광민주(2016)는 김정현(2011) 척도를 활용하여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른 사회초년생의 신용·부채관리역량을 비교한 연구에서 태도부분 요인분석결과 신용·부채관리 엄격한 태도와 허용적 태도로 나누었다. 엄격한 태도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박종욱(2016)은 신용관리 태도를 연체에 대한 허용적, 비허용적 태도로 정의하고 5문항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체에 대해 허용 적이지 않을수록 미연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 신용에 대해 허용적, 개방적, 긍정적, 강박적인 태도일 경우 고 위험 군에 속하고 신용 과다 사용자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에 대해 엄격하고, 비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면 미연체 집단에 속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돈이라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포함, 부채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 관련된 태도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 금융기능역량

김정현과 최현자(2011)에서 기능역량은 태도와 지식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으로 실천적 영역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적도 부분은 실천적 차원의 지식부분과 태도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실천적 차원의 지식-기능 척도 선행연구

실천적 차원의 지식기능은 지식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 분석,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다. <표11>은 김정현(2011)과 금융감독원의 지식과 관련된 금융기능 역량 문항이다. 김정현(2011)의 연구에서는 이자계산, 금융비용계산, 상환계획, 상환액 등 실제 대출이 이루어 졌을 때의 비용계산 측면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기본적인 재정평가, 실행노력과 실천적용을 평가하는 측정문항이 있다.

<표11> 김정현(2011)과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식-기능 측정 문항

	키워드	문항
김정현 (2011)	이자계산이해	신용을 사용할 때 이자율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신용사용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금융비용계산 이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금융비용 차이를 가늠할 수 있고,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상환계획적용	신용을 사용할 때 원리금을 계산해보고 이자율과 기간, 나의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상환액계산 이해	부채의 원리금이 000만원이고 상환기간이 00개월이라면, 월 상환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
금융 감독원	재정평가	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그 상품대금을 지불할 여유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한다.
	실행노력	나는 각종 청구대금(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카드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불한다.
	재정평가	나는 평상시 나의 재무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는 편이다.
	실천적용	나는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2) 실천적 차원의 태도-기능척도 선행연구

실천적 차원의 태도기능은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의 여부를 의미한다. 성영애와 정희영(2008)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연구에서는 단기목표수립문항에서 연체미경험자의 행동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재무계획 실행하기 항목에서는 장기적 저축이나, 보험 가입 등 미래를 위한 준비 역시 연체 미경험자 집단에서 행동점수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김정현(2011) 연구에서는 신용카드사용과 상환, 연체해결과 신용등급회복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박종욱(2016) 연구에서는 신용카드사용과 신용이용, 부채상환과 예산 실행과 관련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신용관리 실천수준이 높을수록 미연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선행연구의 금융태도-기능 측정 문항

태도차원	키워드	문항
성영애 정희영 (2008)	재무목표 세우기	나 또는 우리가정이 앞으로 1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경제적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나 또는 우리 가정이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경제적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재무계획 실행하기	가능하면 예산에 따라 지출하려고 노력한다. 정기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 우리가정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신용카드나 빚을 이용한다면 계획에 따라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다. 1년에 한번쯤은 나나 우리가정의 경제 상태를 점검해 반성한다.
김정현 (2011)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무이자할부나 현금서비스 등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부채상환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남으로부터 빌린 돈은 제때에 갚아낼 수 있다.
	연체해결	내가 사용한 신용이 현재 연체 상태에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해결할 자신이 있다.
	신용등급 회복	나의 신용등급이 낮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박종욱 (2016)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어떻게 갚을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결제하는 편이다.
	신용카드 사용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신용카드로 쉽게 할부로 구입하는 편이다.
	신용이용	현금서비스가 필요하면 고민 없이 손쉽게 현금서비스를 받는 편이다.
	신용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받는 편이다.
	부채상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계획을 세워 갚는 편이다.
	예산실행	지출과 저축에 관한 예산을 세우고 가능하다면 예산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천적 측면의 태도에 행동수행의향을 나타내는 조혜진과 최현자(2006)의 지출조건에 무관심하고, 재정상태 인지가 부족할수록 신용과다 심각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문항에 포함시켰다. 또한, 성영애와 정희영(2008), 박종욱(2016)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 추가하였다.

3. 심리적 편향현상과 관련 선행연구 고찰

부채와 관련된 심리적 편향현상은 주관적 경기전망과 위험수용성향, 자기과신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주관적 경기전망

가계가 경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질 경우, 낙관적 기대감이 가계부채 보유여부와 보유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지섭, 2014). 주관적 경기전망을 가지고 부채나 소비지출을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김기욱·이승신(1990)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이 소비지출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경기전망이 부정적일 경우 구매의향을 위축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1년 전과 비교한 현재는 다소 비관적이었으나 향후 5년의 전망은 낙관적이었다. 이 연구는 주관적 경기전망에 따른 부채여부나 부채증가액을 살펴보는 연구는 아니었으나,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김지섭(2014)은 가계금융 복지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심리적 요소 중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향후 1년간 소득 및 거주주택 가격 전망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가계의 소득이나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더라도 가계의 주관적 경기전망만으로도 가계부채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적 기대를 가지는 가구는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과 부채량이 많았고, 신규부채를 차입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만약 기대와 달리 경기가 좋지 않아질 경우 연체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변수로 나타났다. 심영(2017)은 2012-2013년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주관적 전망이 부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하였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수록,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할수록 부채증가 가계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표13> 선행연구의 주관적 경기전망 측정 문항

연구자	데이터	측정문항
김기욱·이승신(1990)	서울시 거주 주부 설문	- 가정경제의 1년 전과 1년 후 비교 - 우리나라 경제의 1년 전과 1년 후 비교 - 우리나라 경제의 5년 후와 비교 - 내구재구매 적절시기 여부

김지섭(2014)	가계금융·복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주택가격 전망 ① 하락할 것이다 ② 변화 없을 것이다 ③ 상승할 것이다 ④ 모르겠다. - 1년 후 소득변화 ① 감소할 것이다 ② 변화 없을 것이다 ③ 증가할 것이다
심영(2017)	한국복지패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택의 가계수입(부동산자산가치, 금융자산가치)은 현재와 비교하여 1년 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크게 감소할 것이다. ② 다소 감소할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다소 증가할 것이다. ⑤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되 1년보다 다소 긴 5년 후의 본인의 소득 변화와 5년 후 우리나라 경제 전망 문항으로 측정을 하고자 한다.

2) 위험수용성향

각 개인이 지닌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개인이 보유하는 위험자산의 양과 비중이 달라지므로 위험수용성향은 재무관리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한수연, 2017). 위험수용 성향연구는 주로 주식, 펀드 등의 투자자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채의 경우도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앞당겨 쓰는 활동이므로, 개인의 위험수용성향에 따라 부채 부담도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한사람의 위험수용성향은 일관성을 가지며, 반복 측정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어졌다 (Grable et al, 2016; 주소현 2017 재인용). 따라서, 위험수용성향은 척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험수용성향 측정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측정하는 방법, 주어진 진술문에 동의하는지 여

부로 측정하는 방법, 실제 투자행동 분석, 본인 스스로 위험수용성향을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다. <표14>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위험수용성향 측정척도이다. 허경욱과 이현진과 최미향(2010)은 노동 패널에서 사용한 위험감수도 측정척도를 사용하여 가구주의 위험수용성향을 파악하였다. 차경욱(2014)은 금융거래와 자산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30대 이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정방법으로 위험감수성향 집단을 구분하여 특성을 비교하고, 측정방법별 차이를 연구하였다. Hanna & Lindamood (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가상시나리오, 투자위험 감수정도, 주관적으로 판단한 투자유형을 조사하여 세 가지 측정방법으로 구분한 위험감수성향이 일치하는 대상자는 34.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측정방법 중 주관적으로 판단한 투자유형에 의한 위험감수성향 집단을 구분했을 때 세 가지 방법에서 위험감수성향이 일치한 집단의 결과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어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 투자유형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한편 주소현(2017)의 연구에서는 투자위험과 관련한 개인의 심리적인 성향과악을 위해 Grable & Lytton(2003)의 1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기존연구에서 주로 측정한 단일문항을 보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측정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경욱(2014)의 연구에서처럼 여러 가지 위험수용성향 측정방법 중 대표성을 갖는 주관적으로 판단한 투자유형에 의한 측정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투자권유준칙에 나와 있는 주관적으로 판단한 투자위험수용성향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으므로 주소현(2017)의 연구에서 번역하여 사용하였던 Grable & Lytton(2003)의 문항중 상대방이나에 대해 판단한 위험수용성향을 추가하여,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것을 줄이고자 한다. 따라서 차경욱(2014)과 주소현(2017)의 각각 단일문항의

총 두 문항으로 위험수용성향을 측정하나, 보기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표14> 선행연구의 위험수용성향 측정 문항

연구자	위험수용성향 척도
허경옥, 이현진, 최미향 (2010)	<p>(노동패널 위험감수도 측정척도 사용)</p> <p>■ 지난주말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가게를 돌봐주었다. 다음날 가게주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10만원의 현금이나 증석복권 중 하나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p> <p>① 현금 10만원 ② 당첨확률 50% 당첨금 15만원 ③ 당첨확률 50% 당첨금 20만원 ④ 당첨확률 40% 당첨금 20만원 ⑤ 당첨확률 60% 당첨금 20만원 ⑥ 당첨확률 20% 당첨금 50만원 ⑦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음 또는 모름</p>
차경옥 (2014) /Hanna&Lindamood (2004)	<p>■ 가상시나리오 3문항</p> <p>1. TV 퀴즈 프로그램 참가. 상금 200만원 획득. 다음단계 도전 결정. 정답을 맞히면 추가상금 있으나 틀리면 이미 획득한 것도 못 받는다. (손지연, 주소현, 2016에서도 사용한 문항)</p> <p>2. 신규 상장회사로 이직을 하는데, 한 가지 제안중 어떤 선택을 할까?</p> <p>3. 주식에 1000만원 투자. 한 달 후 주가 20% 하락. 어떤 선택할 것인가.</p> <p>■ 투자위험 감수정도</p> <p>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존되어야 한다. ② 원금보존을 고려하지만 투자수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③ 투자수익을 위해 원금의 1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④ 투자수익을 위해 원금의 2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⑤ 기대수익이 높다면 투자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는다.</p> <p>■ 주관적으로 판단한 투자유형(투자권유준칙에 제시된 측정문항)</p> <p>① 이자소득선호형 ② 안전투자형 ③ 혼합투자형 ④ 주식형편드선호형 ⑤ 주식선호형 ⑥ 공격투자형</p>
주소현 (2017)/Gragble, J.E.&Lytton, R.H.(1996)	<p>■ 투자위험에 대한 귀하의 태도에 대해 귀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귀하를 묘사한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p> <p>① 진짜 도박사 ② 충분한 조사 후 위험을 감수 ③ 조심성이 있는 사람 ④ 리스크를 피하는 사람</p>

3) 자기과신

자기과신(over-confidence)이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실제보다 더 좋게 비칠 것이라고 믿으며, 무언가를 예측할 때 실수할 확률이 적다고 믿는 성향을 말한다(주소현, 2009). 즉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과신을 측정하는 방법은 자기과신의 정의를 바탕으로 지식과 지식인지 수준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있고, 신뢰구간 추정 퀴즈의 방식으로 측정하기도 했다. 또한, 운동 실력이나 운전 실력과 같은 속성들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평균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 사람들에게 좋은 사건과 나쁜 사건이 자신에게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도록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나혜림, 조혜진, 최현자, 2014).

자기과신 연구 역시 주로 재무관리행동이나 투자자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백은영과 주소현(2011)은 설문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기과신 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차이에 관해 살펴보았다. 자기과신 측정은 주식투자자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운전실력, 투자실력 등 총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기과신 성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위험자산 보유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영과 정운영(2013)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20세 이상 증권사나 보험사 상품 가입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에 따라 재무걱정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자기과신이 가장 낮은 수준의 소비자들이 현재, 미래, 은퇴 재무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혜림과 조혜진과 최현자(2014)는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2012 펀드투자자조사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펀드투자이해력에 있어서 자기과신과 과소평가의 결정요인

제 4 장 연구방법

을 살펴보고, 펀드투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기과신 평가를 위해 객관적 펀드투자는 지식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주관적 펀드투자 이해력의 경우 펀드투자와 관련된 용어를 알고 있는지 여부로 살펴보았다.

조혜진과 장연주(2015)의 연구에서는 목표설정과 계획이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밝히고, 자기과신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자기과신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 35문항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고, 예상 금융이해력 점수를 추정하여 이 수준의 차이를 활용하여 자기과신 성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기과신 성향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즉, 적절하게 자기과신 성향이 높으면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에 도움이 되나, 자기과신이 너무 높아도 편향된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자기신념이 지나치게 부족해도 채무부담도가 과도하게 높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역량부분에서 측정되는 지식과 주관적 지식부분에 대한 문항의 결과 차이를 통해 자기과신에 해당하는 청년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부채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금융역량, 심리적 편향요인이 부채완납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부채 상환중인 청년의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채를 경험한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채완납여부와 부채상환 가능성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금융역량, 심리적 편향의 다양한 개인의 특성이 부채상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청년층의 부채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채상환 완료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1] 부채완납 여부에 따른 집단의 부채특성은 어떠한가?

[2-2] 부채완납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1] 부채상환 가능성에 따른 청년들의 부채 특성은 어떠한가?

[3-2] 청년들의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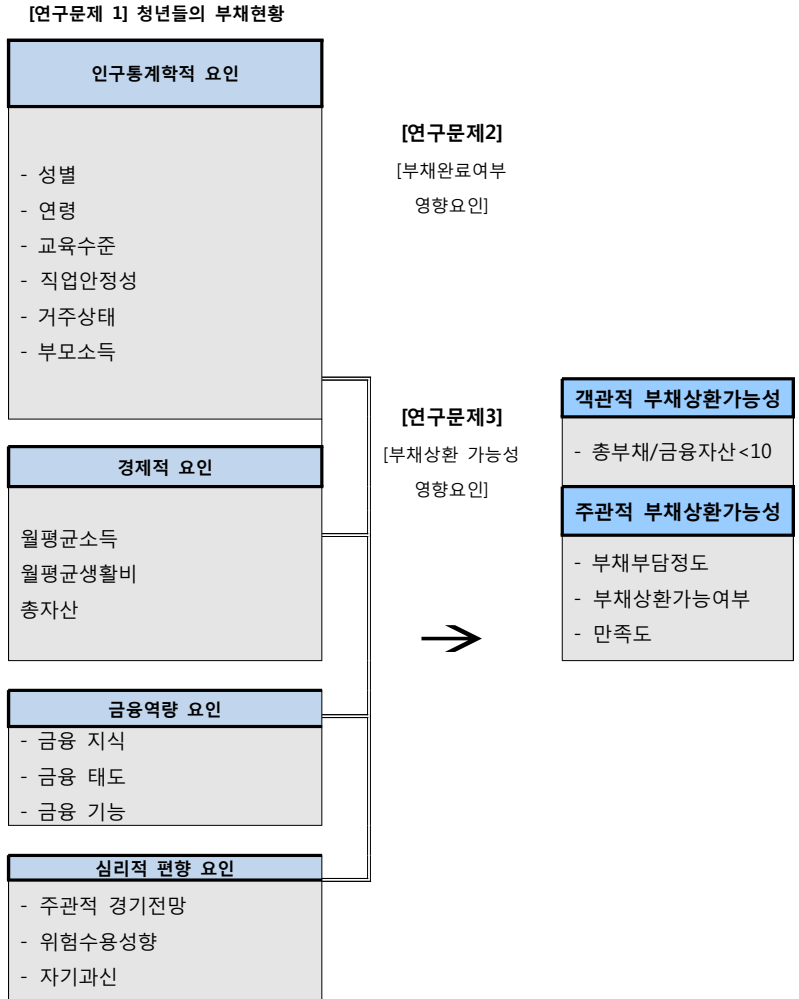
[3-3] 청년들의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모형

청년층의 부채 보유액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대학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부채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을 때 행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소득이 지출을 초과할 때 부채를 갚을 수 있다면 필요 시점에서의 부채사용은 전 생애의 총 소비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부채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상환 여부 내지 부채상환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채상환 가능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부채의 양이 증가한다고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채상환에 문제가 있거나 부채로 인해 현재시점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문제이므로 재무지표비율로 객관적 부채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주관적 부채부담이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7>의 연구모형에서처럼 청년층의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본적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외에도 금융역량과 심리적 편향요인을 포함하였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환경에서 현명한 재무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금융관련 지식과 태도와 기능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OECD, 2014). 따라서 지식, 태도, 기능의 금융역량을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행동경제학적 측면에서 금융상품 선택 시 비합리적 행동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FCA, 2013), 부채행동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리적 편향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였다.

대상: 부채보유 경험이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그림7> 본 연구의 연구모형

3. 연구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청년의 연령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5조 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학자금대출 경험이 있는 청년을 포함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자격인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기혼일 경우 부채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미혼’ 청년으로 한정하였다.

1) 종속변수: 부채상환완납여부, 부채상환 가능성

본 연구모델의 종속변수는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이다. 최현자와 이희숙과 양세정과 성영애(2003)의 연구에서는 재무측정지표의 하나로 부채부담지표를 제시하였는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단기(월평균 부채상환액/월평균 가계소득), 중기(총부채/금융자산), 장기(총부채/총자산)로 나눈바 있다. 단기지표의 경우 분자에 사용된 월평균 부채상환액은 학자금 부채 특성상 채무자가 현재 이자만 상환하고 있거나 이자조차 유예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고려하여 청년들의 부채상환 가능성을 측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한편, 장기부채지표의 경우 분모의 총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청년의 대부분이 금융자산 이외의 부동산 자산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금융자산과 총자산의 차이가 거의 없다. 축적된 자산이 없는 청년층에게는 이들이 제시한 장기부채지표가 장기 부채상환 가능성을 의미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채상환 가능성 지표로 중기지표인 총부채/금융자산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변수로는 <표15>와 같이 이은영과 허은정의 연구(2005)에서 사용한 부채상환 가능성에 대한 부채부담 정도 측정문항과 광민주, 이희숙, 김민정(2012)의 연구, 한동익과 최현자의 연구(2012)에서 사용하였던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정도, 김시월과 조향숙의 연구(2014)에서 사용된 경제상태만족도를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표15> 본 연구의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측정 문항

측정지표	세부내용
객관적 지표	총부채/금융자산 <10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을 모두 합한 금액)
주관적 지표	<p>■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상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황이 불가능하다. ② 상황이 다소 어렵다. ③ 무난하다. ④ 상환에 문제가 거의 없다. ⑤ 상환에 문제가 전혀 없다.</p>
	<p>■ 부채가 본인의 생계에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약간 부담스럽다. ③ 무난하다. ④ 부담이 없는 편이다. ⑤ 전혀 부담이 없다.</p>
	<p>■ 본인의 전반적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p>

2) 인구통계학적 요인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변수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안정성, 거주상태, 부모소득을 포함하였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보고서(2017)와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2016)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채액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이은영과 허은정(2005), 김우영과 김현정(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 직업종류, 가구주연령, 주택보유형태 등이 객관적 부채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영애(2010), 한동익과 최현자(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이거나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남성이거나 낮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 장기부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종욱(2016) 연구에서는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 집단이 봉급생활자와 전문자영업자 집단에 비해 연체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부채상환 가능성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직업안정성으로 구분하였다. 무직은 직업안정성(하), 비정규직은(중), 정규직은(상)으로 나누었다. 계약직에 속하는 집단을 직업안정성(중)으로 구분하여 계약직 봉급생활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부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을 포함하였다. 직업안정성(상)에는 정규직봉급생활자와 전문직 자영업자(의사, 변호사)가 포함되었다. 이밖에도 거주상태를 영향요인으로 포함하였다. 거주상태는 부모와 동거가구, 단독가구(1인 전세), 단독가구(1인 월세)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비동거는 청년층의 생활비, 소득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부채상환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청년 중 미혼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므로 청년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소득이 청년들의 부채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분석모델에 포함하였다.

3)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의 변수는 부채가 있는 청년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생활비, 그 외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변수로 포함하였다. 먼저, 세금을 제외한 개인의 월평균 소득을 변수로 하였다. 본인의 소득은 기 축적된 부채를 줄이는 대표적인 자원이며, 동시에 새로운 부채 창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학자금 대출연구를 진행한 문한나(2009)와 황남희(2013)의 연구에서처럼 소득수준은 주관적 부채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광민주와 이희숙(2015)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부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월평균생활비가 많을수록, 학자금대출 이외의 추가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부담정도인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미혼이므로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보조를 받는 세대 간 자원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타 집단에 비해 크다. 따라서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 또한 월평균 생활비에 포함하며, 역으로 부모의 생활비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4) 금융역량 요인

금융역량은 올바른 재무결정을 내리고 재정적 복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금융지식과 태도와 기능의 조화로 정의내릴 수 있다. 복잡해지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에 대한 역량수준은 청년들의 부채상환 가능성에 주요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금융지식, 태도와 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금융지식

박창균과 연태훈과 허석균(2016)의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금융지식과 부채조달 행위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금융지식과 개인의 부채부담 지표와의 살펴본 결과 부채부담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필요하였다. 부채행동에 영향을 주는 금융지식 측정에서 금융이해력조사에서는 기본적인 금융지식문항으로 금융역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희숙과 곽민주(2016)는 부채관련 지식만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부채문제라도 부채지식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금융지식도 부채 행동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일반적 금융지식과 부채관련지식을 모두 측정하였다. <표16>과 같이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와 김정현(2011) 연구와 선행연구들을 활용하여 일반 금융지식 측정 내용으로는 이자율, 시간개념, 물가상승, 투자위험, 수익률 계산 문항 총 5문항을 개념위주로 측정하였다. 부채지식측정문항은 정부지원제도, 제2금융 금리, 상환방법, 연체정보, 과중 채무 시 도움기관 5문항으로 최근 부채이슈와 관련된 사실위주의 지식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내적 일관성신뢰도 척도인Cronbach's α 의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747, .649 로 나타났다. 보통 .7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나 .649점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여 모든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16> 본 연구의 금융지식 측정 문항

측정	지식 차원	키워드	문항	정답	참고문헌	Cronbach's α
금융 기본 지식 측정	개념	이자율	대출이자율은 저축이자율보다 높다.	o		.747
	개념	시간개념	부채를 사용하면 미래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다.	o	김 정 현 (2011)	
	개념	물가	동일한 월급에 물가가 올라가면 생활수준이 낮아진다.	o	금융이해력	
	개념	투자위험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은 대체로 투자위험이 크다.	o	금융이해력	
	개념	수익률 계산	천만 원을 투자하여 년 수익률이 20%일 때 1년 뒤에 1,200만원이 된다.	o	Annamaria Lusard&Peter Tufano(2009)	
부채 지식 측정	사실	정부지원 제도	미취업 청년은 햇살론 대출 제도(연 4.5-5.4%) 대상자 이다.	x		.754
	사실	제2금융 금리	돈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은 20%의 이자율도 적용 할 수 있다.	o		
	사실	상환방법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고나서 일정기간동안 이자만 갚는 기간을 말한다.	o		
	사실	연체정보	학자금 대출 연체는 신용정보에 반영되지 않는다.	x		
	절차	과중채무 시 도움기관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이다.	o	김 정 현 (2011)	
						.649

(2) 금융태도

태도변수는 어떤 주어진 대상에 관해 일관적으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

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학습된 성향으로 정의된다(양윤, 2014). 조혜진과 최현자(2006), 성영애와 정희영(2008), 최윤선(2015), 이희숙과 광민주(2016), 박종옥(2016)의 선행연구들에서 태도는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행동에 대한 태도문항만을 측정 한계에 서 벗어나, 일반적 돈에 대한 태도와 부채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적 돈에 대한 태도는 돈이라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묻고 있는데, 최재경(2016)문항 중 선호와 지위지향 척도 6문항을 참조하였다. 부채태도 측정을 위해서 금융이해력 문항과 김정현(2011) 연구와 기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였고, <표17>에서처럼 금융태도 측정문항은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내적 일관성신뢰도 척도인 Cronbach's α 의 계수를 산출한 결과 돈에 대한 태도는 .840, 부채태도는 .571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낮아 '저축하는 것보다 당장 지출하는 것에 더욱 만족감을 느낀다' 문항을 제외하고 재 측정하였다. 그 결과 Cronbach's α 값은 .627로 측정되었다. .7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나, .627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여 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표17> 본연구의 금융태도 측정 문항

측정	분류	문항	선행연구	Cronbach's α
돈에 대한 태도	대상에 대한 태도	돈은 매력적인 것이다.	최재경(2016)	.840
		돈은 좋은 것이다.		
		돈은 중요하다.		
	대상에 대한태도	돈은 성공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모든 일이 더 잘될 것이다.		
부채 태도	행동에 대한 태도	저축하는 것보다 당장 지출하는 것에 더욱 만족감을 느낀다. (문항 삭제)	금융이해력	제외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을 빌려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금융이해력 김정현(2011)	.627
	주관적 규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대출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3) 금융기능

금융기능영역은 태도와 지식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으로 실천적 역량을 말한다(김정현, 최현자, 2011). 소비자의 금융채무 연체와 채무불이행에 관한 연구를 한 박종옥(2016)은 신용관리 실천수준이 높을수록 미연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기능역량은 부채행동과 상관관계가 높은 역량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18>과 같이 실천적 의미의 지식과 태도를 일반적 지식과 특정부채 실천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천적 측면의 지식에 김정현(2011)과 금융이해력을 기본으로 하여, 조혜진과 최현자(2006)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재정평가, 실천 적용, 부채정보 기억, 상환액 계산이해, 상환계획적용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천적 지식을 측정하였다. 또한, 태도부분에는 성영애와 정희영(2008), 박종욱(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하고 추가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실천적 태도 문항은 일반금융실천태도와 부채 실천태도를 포함하였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지각된 통제감과 실행노력을 토대로 측정하였다.

문항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내적 일관성신뢰도 척도인 Cronbach's α 의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795와 .788로 나타났다. 0.7이상의 점수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모든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18> 본 연구의 금융기능 측정 문항

측정	키워드	문항	참고문헌	Cronbach's α
일반 실천 지식	재정 평가	평상시 나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편이다	금융이해력	.795
	실천 적용	나는 돈에 대해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금융이해력	
부채 실천 지식	부채정보 기억	나의 총부채액과 월 부채상환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조혜진·최현자(2006)	
	상환액 계산 이해	천만 원을 3년 동안 대출하였을 때, 매 월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상환계획 적용	대출시, 이자율과 기간, 나의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다.	김정현(2011)	
일반 실천	실행노력	나는 각종 청구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불한다.	금융이해력	.788

태도	지각된 통제감	가능하면 소득 내에서 지출하려고 노력한다.	성영애·정희영(2008)
부채 실천 태도	지각된 통제감	나는 이자가 더 저렴한 대출을 받거나, 이자가 더 높은 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받는 편이다.	박종욱(2016)
	실행노력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부채나 이자 상환은 연체하지 않는다.	박종욱(2016)

5) 심리적 편향요인

부채와 관련된 심리적 편향현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19>에서와 같이 주관적 경기전망과 위험수용성향과 자기과신을 측정하였다. 김지섭(2014)의 연구처럼 가계가 경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거나, 지나치게 낙관적 기대감을 갖게 되면 가계부채 보유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관적 경기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 부채가 증가하거나 추가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 심리적 편향요인으로 포함을 시켰다. 김기옥과 이승신(1990), 김지섭(2014), 심영(2017)의 선행연구에서는 1년 후의 소득이나 부동산자산, 경제전망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청년세대는 취업난으로 미래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이고, 부채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영(2017)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2012)의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되 선행연구의 1년이 아닌 5년 후의 자신의 소득 변화와 5년 후의 경제전망으로 측정하였다. 이 두문항의 응답은 ① 많이 나빠질 것이다. ②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나아질 것이다. ⑤ 많이 나아질 것이다.

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이 두문항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값이 3 점 미만이면 비판적, 3점 이상~ 4점미만 보통, 4점 이상이면 낙관적으로 보았다.

위험수용성향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각 개인이 지닌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보유하는 위험자산의 양과 비중이 달라지므로 재무관리에서 중요한 변수로 본다(한수연, 2017).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투자연구에 많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부채역시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미래의 소득의 현재로 앞당겨 쓰는 활동이므로, 개인의 위험수용성향에 따라 부채 액수나, 부채부담도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심리적 편향변수로 포함하였다. 차경욱(2014)은 여러 가지 위험수용성향을 모두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주관적으로 판단한 투자유형에 의한 측정문항이 가장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투자권유 준칙에 나와 있는 주관적으로 판단한 투자위험수용성향 역시 실제투자내용보다 높은 위험으로 측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경욱(2014)의 주관적으로 판단한 투자위험수용성향 문항과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차경욱(2014)의 문항과 함께 주소현(2017)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 판단한 위험수용성향 문항을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 ① 안정형 ② 안전투자형 ③ 위험중립형 ④ 적극투자형 ⑤ 공격투자형으로 5점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두문항의 평균으로 2점 이하면 안정형, 2.1점 이상~3점 이하면 보통형, 3.1점 이상이면 위험수용성향을 공격형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Cronbach's α 계수는 주관적 경기전망이 .526, 위험수용성향 .762,의 내적일관성 점수가 나타났다. 주관적 경기전망 점수가 다소 낮기

는 하지만, 두 문항을 합치는 것이 본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두 개의 문항을 주관적 경기전망으로 측정하였다.

자기과신이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과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투자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백은영과 주소현(2011)의 연구에서처럼 자기과신 성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위험자산 보유 비중이 높고, 박주영과 정운영(2013)은 자기과신이 지나치게 낮아도 현재, 미래, 은퇴 등의 재무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행동 역시 자기과신 성향의 사람들은 본인의 적정부채 수준보다 과도하게 빌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심리적 편향 변수로 포함하였다. 자기과신을 측정하는 방법 중 나혜림과 조혜진과 최현자(2014), 조혜진과 장연주(2015)에서 사용된 지식과 지식인지 수준간의 차이 측정을 이용하였다.

<표19> 본 연구의 심리적 편향요인 측정 문항

심리적 편향	측정문항	참고문헌	Cronbach's α
주관적 경기 전망	1. 귀하의 소득 은 현재와 비교하여 5년 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나빠질 것이다. ②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나아질 것이다. ⑤ 많이 나아질 것이다.	심영(2017)	.526
	2. 귀하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이 현재와 비교하여 5년 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나빠질 것이다. ②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나아질 것이다. ⑤ 많이 나아질 것이다.	심영(2017)	
위험 수용 성향	3. 귀하가 투자를 할 때 주관적으로 판단한 본인의 투자유형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안정형: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② 안전투자형: (투자원금 손실 최소화)	차경욱(2014)	.762

	③ 위험중립형: (일정수준 손실감수) ④ 적극투자형: (원금보전보다 위험감내하고 위험자산에 투자) ⑤ 공격투자형: (손실위험 적극 수용하고 고위험상품에 투자)	
	4. 투자 위험에 대한 귀하의 태도에 대해 귀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귀하를 묘사한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투자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사람 ② 투자위험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 ③ 평균적인 투자위험을 가진 사람 ④ 어느 정도 투자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 ⑤ 높은 수익을 위해 큰 투자손실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	주소현(2017)
자기 파신	5.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재무지식 수준은? ① 매우 낮은 편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③ 약간 낮은 편이다. ④ 보통이다. ⑤ 약간 높은 편이다. ⑥ 높은 편이다. ⑦ 매우 높은 편이다.	나혜림·조혜진·최현자(2014))조혜진·장연주(2015)

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의 구성

대학시절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금융역량, 심리적 편향특성이 부채상환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관련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부채보유경험이 있는 청년의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측정을 위하여 <표20>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객관적 지표는 최현자와 이희숙과 양세정과 성영애(2003)의 중기 부채부담지표인 총부채/금융자산 비율로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준거기준은

10배로 하였고, 10미만인 집단은 [부채상환가능 가능집단], 10이상인 집단은 [부채상환가능 불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총부채는 현재잔액기준 총부채이고, 분모인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하였다. 금융자산이 없는 청년은 분모인 금융자산액을 1로 대체하여 계산하였다.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은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상환가능성,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 전반적인 경제상태 만족도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고 평균 점수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총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객관적 지표상태가 좋은 것으로 본다.

<표20>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종속변수	측정문항	변수성격	측정방법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지표	■ 총부채/금융자산<10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을 모두 합한 금액)	연속변수	금액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지표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상환이 가능여부 ■ 부채가 본인의 생계에 주는 부담정도 ■ 본인의 전반적 경제 상태 만족도 (5점 리커트 척도)	연속변수	3문항 평균

2) 인구통계학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표21>에서와 같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안정성, 거주상태, 부모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연령은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직접 기입한 수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

였고, 최종학력은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2년제 이상 대졸자를 선별하여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으로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직업안정성은 상(정규직), 중(비정규직), 하(무직)로 나누었다. 거주상태는 부모와 동거가구, 단독가구(1인 전세), 단독가구(1인 월세)의 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거주상태 측정 시 단독가구 (1인 자가)는 결측 처리하였다. 비동거 청년 중 자가가 있는 경우 자가 라고해서 재무적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나,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전월세로 보기는 어렵고, 샘플이 n=10으로 작아 결측으로 측정하였다. 비동거 부모의 소득수준은 세금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으로 청년 본인이 직접 기입한 수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표21>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문항	측정방법	변수성격
성별	여성	범주변수
연령	만_세	연속변수
교육수준	4년제 대졸이상	범주변수
직업의 안정성	직업의 안정성 중(비정규직) 직업의 안정성 상(정규직)	범주변수
거주상태	단독가구 (1인 전세) 단독가구 (1인 월세)	범주변수
부모소득	월평균 약 만원 (세금제외)	연속변수

기준: 성별(남성), 최종학력(3년제 대졸이하), 직업의 안정성(하), 거주상태(부모와 동거)

3)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의 변수는 청년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생활비, 현재 총자산을 포함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 금액으로, 월평균 생활비는 부채상환액을 제외한 실제 생활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평균 생활비에 포함하였고, 반대로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조 받는 경우에는 이전소득으로 간주하여 월평균 소득에 포함하였다. 자산은 조사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현재시가, 그리고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였다.

<표22> 경제적 요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문항	측정방법	변수성격
월평균소득	본인소득+ 부모 보조받음	연속변수
월평균 생활비	부채상환액 제외한 실제 생활비 +부모 생활비 지원	연속변수
총 자산	금융자산(예·적금·주식·채권 모두포함) +전·월세 임대보증금 +부동산자산(아파트, 주택, 상가 등 현재시가)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4) 금융역량 요인

(1) 금융지식

금융지식은 일반적 금융기본지식과 부채와 관련된 지식 두 부분으로 측

정 하였다. 각각 5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0,X,모름으로 응답 하였다.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름은 0점 처리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산 출하였다.

<표23> 금융지식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측정	측정문항	측정방법
일반 금융 지식 측정	대출이자율은 저축이자율보다 높다.	정답1 오답/모름0
	부채를 사용하면 미래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다.	
	동일한 월급에 물가가 올라가면 생활수준이 낮아진다.	총5점 만점 (연속변수)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은 대체로 투자위험이 크다.	
천만 원을 투자하여 년 수익률이 20%일 때 1년 뒤에 1,200만원이 된다.		
부채 지식 측정	미취업 청년은 햇살론 대출 제도(연 4.5-5.4%) 대상자이다.	정답1 오답/모름0
	돈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은 20%의 이자율도 적용 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고나서 일정기간동안 이자만 갚는 기간을 말 한다.	총5점 만점 (연속변수)
	학자금 대출 연체는 신용정보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이다.		

(2) 금융태도

금융태도 하위영역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관성신뢰도를 검증하였다. Cronbach's α 계수가 작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제외된 1 문항을 빼고 총 8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Varimax 직각회전방법을 이용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각 변수가 얼마나 설명되는지는 공통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공통성이 .5보다 작은 문항이 생기면 그 변수를 무시하거나, 제거하고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이학식, 임지훈, 2009). 본 연구에서는 8개의 변수 모두 .5보다 크므로 문항모두를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7>과 같이 요인 분석결과 두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두 개의 요인들이 전체분산의 61.59%를 설명하고 있었다. 각 요인은 돈에 대한 태도 요인과, 부채에 대한 태도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돈에 대한 태도 요인은 .840, 부채에 대한 태도 요인은 .627로 나타났다.

<표24> 금융태도 문항 요인분석

	돈에 대한 태도	부채에 대한 태도
돈은 좋은 것이다.	.795	-.106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	.785	.090
돈은 중요하다.	.762	-.193
돈은 매력적인 것이다.	.740	-.178
돈이 많으면 모든 일이 더 잘될 것이다.	.728	.181
돈은 성공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695	.230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대출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025	.838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을 빌려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023	.813
누적률(%)	42.38	61.59
Cronbach's a	.840	.627

<표25> 금융기능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문항별로 리커트 척도를 역순으로 점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돈에 대한 태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 값과 부채에 대한 태도요인의 점수 값을 더하여 계산하였다. 부채에 대한 태도부분의 문항이 적어 이 부분을 40% 반영하고, 돈에 대한 태도 요인을 60%로 반영하여 1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금융태도역량은 돈에 대해, 부채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점수가 높게 계산된다.

(3) 금융기능

금융기능은 지식과 태도의 실천역량을 의미한다. 실천적의미의 지식과 태도로 분류하고 각각 일반적인 영역과 특정부채실천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실천적 지식관련 5문항과 실천적 태도관련 5문항으로 총 10문항을 ①전혀 아니다(1점)~ ⑤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총 50점을 10점만 점으로 환산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실천적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계산력과 재정 상태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천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관련 실천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측정	측정문항	측정방법
지식 기능 측정	평상시 나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편이다	5점 리커트 평균 (연속변수)
	나는 돈에 대해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나의 총부채액과 월 부채상환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천만원을 3년동안 대출하였을 때, 매월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대출시, 이자율과 기간, 나의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다.	
태도 기능 측정	나는 각종 청구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불 한다.	5점 리커트 평균 (연속변수)
	가능하면 소득 내에서 지출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자가 더 저렴한 대출을 받거나, 이자가 더 높은 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받는 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부채나 이자상환은 연체하지 않는다.	

5) 심리적 편향요인

부채와 관련된 심리적 편향현상으로 선정한 주관적 경기전망과 위험수용성향과 자기과신의 측정문항은 <표26>과 같다. 주관적 경기전망은 5년 후의 본인소득과 5년 후의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총 2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①번(많이 나빠질 것이다)을 선택할 경우 1점~⑤번(많이 나아질 것이다.)을 선택할 경우 5점으로 하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금

정적인 전망을 한다고 본다. 두문 항을 합하여 평균값을 측정하고, 3점 미만이면 비관적 경기전망, 3점 이상~4점 미만이면 보통, 4점 이상일 경우 낙관적 경기전망을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위험수용성향은 주관적으로 판단한 본인의 투자유형과 친구가 묘사한 투자 위험태도의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①번을 선택할 경우 1점 안정형~⑤번을 선택할 경우 5점 공격형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위험수용성향이 높다. 두 문항을 합하여 평균값을 측정하고, 평균이 2점 이하면 안정형, 2.1점 이상~3점 이하면 보통형, 3.1점 이상이면 위험수용성향을 공격형으로 구분하였다.

자기과신은 금융지식측정문항의 결과와 주관적 지식 인지수준 문항을 추가하여 이들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주관적 지식 인지수준 문항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재무지식수준’ 으로 ①매우 낮은 편이다.(1점) ~ ⑦매우 높은 편이다의 7점 척도로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후 객관적 주관적 지식 각각의 T점수를 산출하여, 점수를 표준화 하였다. 표준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다른 측정 도구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지식측정수준이 T점수의 평균인 50점 미만이면서, 주관적 T점수의 평균인 50점 이상인 집단이 실제로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해 더 많이 안다고 과대평가하는 자기과신 성향을 지닌 집단으로 판단하였다.

<표26> 심리적 편향요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편향	측정문항	변수정의
주관적 경기전망	소득	3점미만- 비관적 3이상-4점미만 보통 4점 이상 낙관적 (더미변수)
	경제상황	

위험수용성향	본인의 투자유형	2점 이하 안정형 2.1점 이상~3이하 보통형 3.1점 이상 공격형 (더미변수)
	상대방이 묘사한 본인의 투자유형	
자기과신	주관적 나의 재무지식	자기과신 아닌 집단=1 (더미변수)

5.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전국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대학을 졸업하고, 미혼이며 부채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채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6월 12일에서 19일까지 8일간 온라인 리서치 전문회사를 통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80부¹⁾가 수집되었다. 이중 응답이 부실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500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은 대학졸업전후 부채경험별 부채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교차분석, Anova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Anova 분석 후, 사후검정은 Duncan' s multiple test를 실시하였다.

1) 580부 중 200부는 담천 소비자연구 후원회의 후원을 받아 컨슈머인사이트가 자료를 수집하였음.

연구문제 2는 부채완납여부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금융역량, 심리적 편향 특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부채완납여부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t검정과 교차분석,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를 부채완납여부의 두 집단으로 처리하여 종속변수가 두 집단으로 나뉜 이분 변수일 때 사용하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은 부채 완납자를 제외한 부채상환중인 청년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금융역량, 심리적 편향이 부채보유자의 객관적·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성파악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교차분석, Anova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측정을 위해 총부채/금융자산<10 여부로 나누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은 총부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상환 가능 여부,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 본인의 전반적 경제상태 만족도의 세문항의 평균값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3을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1 = \alpha + \beta 1X1 + \beta 2X2 + \beta 3X3 + \beta 4X4 + \epsilon 1$$

$$Y2 = \alpha + \beta 1X1 + \beta 2X2 + \beta 3X3 + \beta 4X4 + \epsilon 1$$

$$Y3 = \alpha + \beta 1X1 + \beta 2X2 + \beta 3X3 + \beta 4X4 + \epsilon 1$$

종속변수 Y1= 부채상환완료여부(부채 상환중 0, 부채완료 1)

종속변수 Y2= 객관적 부채부담지표 충족여부

(총부채/금융자산>10 0, 총부채/금융자산<10 1)

종속변수 Y3= 주관적 부채상환가능성 (연속변수)

독립변수X1=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안정성, 거주상태, 부모소득)

독립변수X2= 경제적 변수

(월평균 소득, 총자산(금융자산+전월세 임대 보증금+ 부동산 자산)

독립변수X3= 금융역량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기능)

독립변수X4= 심리적 편향

(주관적 경기전망, 위험수용성향, 자기과신 성향)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연령과 부모소득 변수는 연속변수를 사용하였고, 성별, 교육수준(2-3년제 대졸, 4년제 대졸이상)은 이분변수로 한 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직업의 안정성(상, 중, 하), 거주상태는 부모와 동거, 부모와 비동거하는 가구를 단독가구(1인 전세), 단독가구(1인 월세)로 총 3집단으로 하고 각기 두 개의 더미변수를 포함 하였다. 경제적 변수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금융역량은 지식, 태도, 기능을 10점 만점으로 계산한 값의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심리적 편향중 주관적 경기전망(비관적, 보통, 낙관적), 위험수용성향(안정형, 보통, 위험형)으로 나누어 두 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고, 자기과신 성향변수는 자기과신 성향이 있고 없음의 이분변수로 한 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본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27>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 성별은 남자 42.8%, 여자 57.2%로 여성이 다소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청년의 연령은 평균 26.57세로 나타나, 주로 사회초년생이 본 연구에 주 응답자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은 2-3년제 대졸보다 4년제 대졸이상자가 2배정도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72.4%가 부모님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고, 비동거하는 27.6%의 청년 중 57.9%가 월세에 거주하고, 전세(35.1%), 자가(6.9%)순 이었다. 직업은 직업안정성으로 재분류를 하였고, 무직인 경우 직업안정성(하), 아르바이트, 계약직 봉급생활자, 프리랜서 등을 직업안정성(중)으로, 정규직 봉급생활자와 전문직(의사, 변호사)등을 직업안정성(상)으로 구분하였다. 졸업 후 현재 계약직에 해당하는 직업안정성(중)에 속하는 경우가 52.2%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등의 직업안정성(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33.4%, 직업안정성(하)인 무직은 14.4%로 나타났다.

<표27>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n(%)/만원(S.D))

변수	구분	전체 (n=500)
성별	남	214 (42.8)
	여	286 (57.2)
연령	평균	26.57 (3.05)
교육수준	2~3년제 대졸	155 (31.0)
	4년제 대졸이상	345 (69.0)
거주상태	동거	355 (72.4)
	비동거	145 (27.6)
	자가	10 (6.9)

	전세	51 (35.1)
	월세	84 (57.9)
직업 안정성	(하) 무직	72 (14.4)
	(중) 계약직	261 (52.2)
	(상) 정규직	167 (33.4)
부모 소득		369.96 (223.88)

<표28>은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이다. 월평균 소득은 167.5만원이었고, 그 중 월평균 납입액을 제외한 생활비로는 월평균 76.4만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산을 살펴보면 70.8%가 예·적금, 주식, 채권을 모두 합한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전체 평균 1115.3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월세임대보증금은 전체의 23.8%가 보유하고 있었고, 부동산 자산의 경우에는 전체응답자의 8.8%만이 보유하고 있었다.

<표28>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단위: 만원/명(%))

변수	구분		전체 (n=500)
월평균소득			167.5 (113.4)
월평균 생활비			76.4 (61.7)
총자산	금융 자산	n=500 (100.0)	1115.3 (2152.6)
		n=354 (70.8)	1575.3 (2413.1)
	전월세 임대 보증금	n=500 (100.0)	660.5 (2310.4)
		n=119 (23.8)	2775.1 (4081.0)
	부동산 자산	n=500 (100.0)	1410.1 (6115.4)
	n=44 (8.8)	16023.3 (13942.5)	

제 5 장 연구결과

1. 청년층의 부채현황

만 34세 이하의 부채경험이 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층의 부채 보유 특성과, 부채상환 특성, 금융역량 특성을 살펴보았다. 대학 재학 시 이루어진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대출을 합쳐 [재학 시 부채], 대학 졸업 후 이루어진 마이너스 통장대출과 일반대출을 합쳐 [졸업 후 부채]로 명명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부채보유특성

(1) 부채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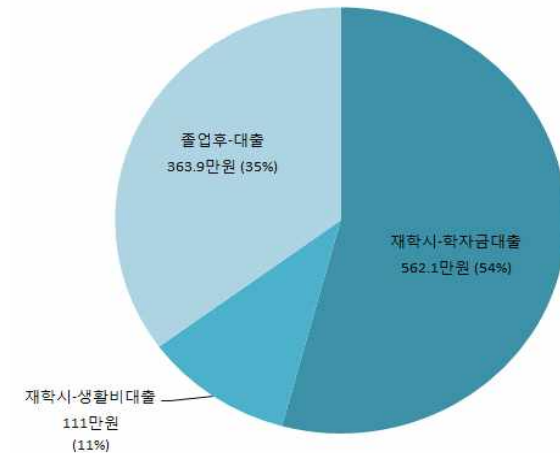
<표29>는 조사대상자 전체의 총부채를 살펴본 것이다. 대학 재학 시 학기별 대출한 학자금 총액은 평균 1009.6만원 이었다. 이중 44.3%를 상환하고 현재는 562.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생활비는 대학 재학시절 165.6만원을 빌리고, 33%를 상환하고 현재 11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과 일반대출을 포함한 졸업 후에 빌린 전체 부채총액은 508.1만원이고 이중 28.4%를 갚고, 현재 363.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표29> 조사대상자 총부채

(단위: 만원(S.D)/ %)

	[재학 시 대출]				[졸업 후 부채]		전체	
	학자금		생활비		일반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전체	1009.6 (992.3)	100.0	165.6 (281.6)	100.0	508.1 (1971.4)	100.0	1683.3 (2111.1)	100.0
부채 잔액	562.1 (812.6)	55.7	111.0 (243.9)	67.0	363.9 (1487.5)	71.6	1037.1 (1646.5)	61.6

<그림8>은 현재 갚아야 할 부채의 총액을 나타낸 것이다. 즉, 현재 청년들의 평균 부채 보유 총액은 총 1,037.1만원이고, 학자금은 이중 54%를 차지하며, 졸업 후 대출이 35%, 재학 시 생활비대출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부담이 여전히 가장 컸다.



<그림8> 조사대상자의 부채보유 총액

<표 30>은 현재 상환 중 인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부채금액이다. [재학 시 부채] 중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63.2%가 현재 학자금 부채를 상환중이며 889.4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생활비대출은 전체 34.2%가 324.67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의 22.8%가 [졸업 후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의 일반대출 부채액은 1596.14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363.92만원보다 4.4배정도 큰 금액이다. 즉, 현재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청년들은 부채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추측된다.

<표30> 부채 상환증인자의 총부채 (단위:만원(S.D))

	[재학 시 부채]				[졸업 후 부채]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일반대출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부채 상환자	316 (63.2)	889.4 (868.3)	171 (34.2)	324.7 (323.72)	114 (22.8)	1596.1 (2790.6)
전체	500 (100.0)	562.1 (812.6)	500 (100.0)	111.0 (243.9)	500 (100.0)	363.9 (1487.5)

(2) 부채유형

<표31>은 대학 재학 시 이루어진 학자금 대출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대학 재학 시에만 부채를 받은 [재학 시 부채] 집단은 순수 학자금 대출만 받은 경우, 학자금과 생활비를 함께 받은 경우, 학자금대출과 졸업 후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과 생활비대출과 졸업 후 대출을 모두 받은 경우로 나누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상환중인 청년의 학자금

대출유형 중 전체 61.8%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졸업 후 일정소득 이상이 될 때까지 이자까지 유예하고, 일정소득 이상이 되면 초과 소득의 일정비율을 상환하게 되는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이다. 특히 학자금과 생활비를 동시에 빌린 청년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소득분위에 따라 학자금 대출 유형을 구분하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다소 낮은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이용하고, 여기에 생활비까지 추가 대출을 받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31> 학자금 대출유형 (단위: 명(%))

학자금 대출 유형	전체	학자금	학자금+ 생활비	학자금+ 일반	학자금+ 생활비+일반	X ²
취업 후 상환 (소득연계대출)	197 (61.8)	69 (58.0)	101 (70.6)	8 (42.1)	19 (50.0)	29.227 **
일반 상환	72 (22.6)	35 (29.4)	16 (11.2)	8 (42.1)	13 (34.2)	
농어촌	14 (4.4)	7 (5.9)	3 (2.1)	1 (5.3)	3 (7.9)	
취업 후 +일반상환	36 (11.3)	8 (6.7)	23 (16.1)	2 (10.5)	3 (7.9)	
전체	319 (100.0)	119 (100.0)	143 (100.0)	19 (100.0)	38 (100.0)	

* 생활비 대출만 받은 n=25명 제외

<표32>는 [졸업 후 부채]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재학 시 부채] 경험을 포함하여 대학 재학 시 학자금을 받고 졸업 후 일반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비 대출을 받고 졸업 후 일반 대출을 받은 경우, 재학 시에는 대출이

없었으나, 졸업 후 일반 대출 경험이 있는 경우, 세 가지 유형의 대출을 모두 받은 경우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졸업 후 부채] 유형의 대부분인 65.7%가 본인의 신용을 이용한 일반신용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대부분 청년의 신용도는 타 연령대에 비해 높지 않다. 때문에 좀 더 높은 금리의 불리한 신용이율로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부담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신용카드 카드를 활용하는 경우도 전체 11.8% 이었다. 신용카드 카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은행대출에 비해 간편하고, 대출 승인이 쉽고 절차가 빨라 비교적 손쉽게 빌릴 수 있지만, 금리가 높다. 부채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부채 이용태도의 점검과 금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임을 시사한다.

<표32> [졸업 후 부채] 유형

(단위: 명(%))

일반 대출 유형	전체	학자금 + 일반	생활비 + 일반	일반	학자금 + 생활비 + 일반	X ²
일반신용 대출	67 (65.7)	22 (66.7)	8 (72.7)	16 (61.5)	21 (65.6)	3.639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3 (2.9)	2 (6.1)	0 (0.0)	1 (3.8)	0 (0.0)	
신용카드 카드를	12 (11.8)	3 (9.1)	2 (18.2)	1 (3.8)	6 (18.8)	
주택담보대출	7 (6.9)	2 (6.1)	0 (0.0)	4 (15.4)	1 (3.1)	
기타	13 (12.7)	4 (12.1)	1 (9.1)	4 (15.4)	4 (12.5)	
전체	102 (100.0)	33 (100.0)	11 (100.0)	26 (100.0)	32 (100.0)	

* 대출유형에서 제외된 n=12는 마이너스 통장부채임.

<표33>은 [졸업 후 부채] 이유를 살펴본 것이다. 생활비가 전체의 29.4%로 졸업 이후 부채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주거비(주택, 전월세 등)가 2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지만, 대학재학시절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경우, 지속적으로 생활비 명목의 추가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생계비가 지속적으로 부담상태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32>의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유형은 7명이었으므로, <표33>의 주거비는 주로 전월세 등의 주거비 마련으로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음으로 분석된다.

<표33> [졸업 후 부채] 이유

(단위: 명(%))

일반 대출 유형	전체	학자금 + 일반	생활비 + 일반	일반	학자금 + 생활비 + 일반	X ²
교육비	5 (4.9)	0 (0.0)	0 (0.0)	0 (0.0)	5 (15.6)	10.341
주거비 (주택, 전세, 월세 등)	25 (24.5)	8 (24.2)	2 (18.2)	8 (30.8)	7 (21.9)	
내구재 구입비 (자동차, 가구 등)	14 (13.7)	7 (21.2)	0 (0.0)	4 (15.4)	3 (9.4)	
생활비	30 (29.4)	9 (27.3)	7 (63.6)	3 (11.5)	11 (34.4)	
병원비	6 (5.9)	3 (9.1)	1 (9.1)	0 (0.0)	2 (6.3)	
재테크	7 (6.9)	2 (6.1)	0 (0.0)	4 (15.4)	1 (3.1)	
기타	15 (14.7)	4 (12.1)	1 (9.1)	7 (26.9)	3 (9.4)	
전체	102 (100.0)	33 (100.0)	11 (100.0)	26 (100.0)	32 (100.0)	

2) 부채상환특성

(1) 주상환자

<표34>는 졸업 전후 부채별 주상환자를 살펴본 것이다. 현재 상환을 시작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재학 시 부채]의 경우 대출 주상환자는 75.8%가 본인이었다. [졸업 후 부채]의 경우 87.7%가 본인이 주상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남희(2013)의 연구에서 학자금대출의 주관적 상환 부담요인으로 주상환자가 본인일 경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부채의 대부분은 청년 본인이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상환중인 청년의 대부분은 부채상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34> 부채 주상환자

(단위: 명(%))

주상환자	재학 시 부채	졸업 후 부채
본인	197(75.8)	100(87.7)
부모	42(15.6)	12(10.5)
본인+부모	23(8.6)	2(1.8)
전체	269(100.0)	114 (100.0)

* 재학 시 부채에서 n=75는 현재 미상환 상태여서 주상환자 제외됨.

(2) 연체경험과 연체이유

<표35>는 집단별 부채 연체 경험과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재학 시 부채]집단은 82.5%가 연체 경험이 없었고, 현재 연체 상태인 경우는 전체의

4.1%로 이들은 생활비 부족, 실직, 투자 사업 실패 등의 사유로 연체를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부채]집단은 91.2%가 연체 경험이 없는 상태이고, 단 한명만이 생활비 부족으로 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부채 연체경험과 이유

(단위: 명(%))

연체경험		재학 시 부채 n=269	졸업 후 부채 n=114
연체경험	없음	222(82.5)	104(91.2)
	있었으나 해결	36(13.4)	9 (7.9)
	현재 3개월 미만 연체	6(2.2)	1(0.9)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5(1.9)	0(0.0)
연체이유 n=11	생활비부족	5(45.4)	1(100.0)
	실직	2(18.2)	0(0.0)
	투자-사업실패	2(18.2)	0(0.0)
	기타	2(18.2)	0(0.0)

(3) 주관적 상환가능성

<표36>은 주관적 상환가능성 측정문항의 결과 이다.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상황이 가능한 정도의 문항에 현재 부채 상환중인 자들은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은 약간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36> 주관적 상환 가능성

(단위: 점(S.D))

주관적 상환가능성 문항	전체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상환이 가능하십니까? (1점 상환이 불가능하다~ 5점 상환에 문제가 전혀 없다.)	3.22(1.00)
부채가 본인의 생계에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1점 매우 부담스럽다 ~5점 전혀 부담이 없다.)	2.63(1.10)

* 5점 만점

3) 금융역량 특성

(1) 금융지식

<표37>은 금융지식역량 측정 정답률 결과이다. 금융 기본지식과 부채 지식을 측정한 결과 물가에 대한 측정 정답률이 9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취업 청년은 햇살론 대출제도 대상자이다.’에 대한 정답률이 1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연체경험자가 적고,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 추가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저금리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음으로 사료된다.

<표37> 금융지식 정답률

(단위: %)

측정	키워드	문항	정답	정답률
금융 기본 지식 측정	이자율	대출이자율은 저축이자율보다 높다.	o	78.8
	시간개념	부채를 사용하면 미래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다.	o	65.4
	물가	동일한 월급에 물가가 올라가면 생활수준이 낮아진다.	o	91.4

	투자위험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은 대체로 투자위험이 크다.	o	89.6
	수익률 계산	천만 원을 투자하여 년 수익률이 20%일 때 1년 뒤에 1,200만원이 된다.	o	58.0
부채 지식 측정	정부지원제도	미취업 청년은 햇살론 대출 제도(연 4.5~5.4%) 대상자이다.	x	18.8
	제2금융금리	돈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은 20%의 이자율도 적용 할 수 있다.	o	39.6
	상환방법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고나서 일정기간동안 이자만 갚는 기간을 말한다.	o	55.6
	연체정보	학자금 대출 연체는 신용정보에 반영되지 않는다.	x	67.6
	과중채무시 도움기관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이다.	o	62.4
총 점 (10점 만점)			6.27	1.83

(2) 금융태도

<표38>은 요인 분석 후 측정문항을 토대로 요인을 명명하고, 요인별 문항의 평균점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된 요인 문항을 중심으로 [돈에 대한 태도]와 [부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평균 3점(5점 만점)이 보통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조사대상자의 돈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측면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부채에 대한 태도는 5점만점에 3.6점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의 돈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부채에 대한 태도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채를 경험했으나, 부채에 대한 태도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채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많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38> 금융태도 요인분석

(단위: 점(S.D))

		평균점수 (n=500)	
돈에 대한 태도	돈은 좋은 것이다.	1.87	(0.81)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	2.25	(0.91)
	돈은 중요하다.	1.57	(0.65)
	돈은 매력적인 것이다.	1.89	(0.76)
	돈이 많으면 모든 일이 더 잘 될 것이다.	2.19	(0.93)
	돈은 성공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2.34	(0.95)
부채에 대한 태도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대출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3.60	(0.92)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을 빌려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3.59	(1.06)
총 점		5.29(1.01)	

* 부채에 대한 허용적 태도문항이 작아 돈에 대한 긍정적 태도 6점, 부채에 대한 허용적 태도 4점으로 배정하여 총 10점으로 계산함

* 1. 매우 그렇다.~ 5. 전혀 아니다.

(3) 금융기능

<표39>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금융기능역량을 살펴보고있다. 금융기능역량은 지식과 태도의 실천적 측면으로 구성하고, 이를 일반적 문항과 부채 관련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각종 청구 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불 한다.’ 는 실행노력에서 4.09점(5점 만점)의 가장 높은

실천력을 나타내고 있었고, ‘천만 원을 3년 동안 대출 하였을 때 매월 얼마를 갚아야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상환액 계산력 문항에서 3.41점의 가장 낮은 점수가 측정되었다. 부채완납여부로 부채 완납자는 상환 중인자와 어떤 실천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완납한 집단에서 평상시 재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돈에 대한 장기목표를 가지고 실천적용을 상환중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본인이 빌린 부채 액수에 대한 인지와 부채 상환액과 이자 계산력, 상환계획, 능력을 고려한 대출 문항에서 현재 상환중인 집단에 비해 더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완납] 집단에서 전반적인 금융실천력인 금융기능역량이 높아, 결국 실천력이 부채상환 완료에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표39> 부채 완납여부에 따른 금융기능역량 비교

(단위: 점(S.D))

측정	문항	전체 N=500	완납 n=101	상환 중 n=399	t
일반 실천 지식	평상시 나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편이다	3.65 (.81)	3.90 (.67)	3.59 (.83)	-4.01 ***
	나는 돈에 대해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3.41 (.93)	3.71 (.85)	3.33 (.94)	-3.97 ***
부채 실천 지식	나의 총부채액과 월 부채상환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3.62 (.95)	3.89 (.81)	3.55 (.97)	-3.66 ***
	천만 원을 3년 동안 대출하였을 때, 매월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3.37 (1.05)	3.67 (.94)	3.29 (1.06)	-3.54 **
	대출시, 이자율과 기간, 나의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다.	3.45 (.95)	3.79 (.79)	3.37 (.97)	-4.58 ***

일반 실천 태도	나는 각종 청구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불 한다.	4.09 (.72)	4.15 (.74)	4.08 (.72)	- .83
	가능하면 소득 내에서 지출하려고 노력한다.	4.16 (.70)	4.22 (.66)	4.14 (.71)	- .96
부채 실천 태도	나는 이자가 더 저렴한 대출을 받 거나, 이자가 더 높은 저축에 가입 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3.78 (.89)	3.93 (.89)	3.74 (.89)	- .19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 해서 받는 편이다.	3.90 (.77)	4.04 (.80)	3.86 (.76)	- .21 *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부채나 이자상환은 연체하지 않는다.	3.90 (.82)	4.00 (.76)	3.87 (.83)	- .14
총 점 (10점 만점)		7.46 (1.11)	7.86 (1.12)	7.36 (1.09)	-4.066 ***

*p<.05, **p<.01,***p<.001

2. 부채완납여부 관련 영향요인

연구문제 2번에서는 부채상환 완료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특성을 살펴
보고, 부채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1) 부채완납 여부에 따른 부채특성

<표40>은 부채상환 완료여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요인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부채상환 완료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결과 성별, 연령, 직업안정성
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부채상환 완료집단에서 여성의 분포
가 남성은 31.7% 인데 반해 여성은 68.3%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 부채상환중인 집단은 평균 26.2세, 부채상환완료 집단은 28.0세로
부채상환 완료집단의 연령이 유의하게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안정성에서는 부채 상환중인 집단은 직업안정성(하)의 무직의 비율이
17.5%이고, 정규직을 나타내는 직업안정성(상)의 비율이 29.8% 였다.
반면, 부채상환을 완료한 집단에서는 무직의 비율이 2%로 줄어들고, 정규
직에 해당하는 (상)집단의 비율이 47.5%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당연하게
도 직업의 안정성이 부채상환 완료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0> 부채완납 여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요인 특성

(단위: 명(%)/ 세(SD), 만원(SD))

구 분		전체 n=500	부채 상환 중 n=399	부채 상환 완료 n=101	x ² /t
성별	남성	214 (42.8)	182 (45.6)	32 (31.7)	6.389 *
	여성	286 (57.2)	217 (54.4)	69 (68.3)	
연령		26.57 (3.1)	26.20 (3.0)	28.04 (2.9)	-5.573 ***
교육 수준	2-3년제 대출	155 (31.0)	131 (32.8)	24 (23.8)	3.100
	4년제 대출이상	345 (69.0)	268 (67.2)	77 (76.2)	
직업 안정 성	하(무직)	72 (14.4)	70 (17.5)	2 (2.0)	21.188 ***
	중(계약직)	261 (52.2)	210 (52.6)	51 (50.5)	
	상(정규직)	167 (33.4)	119 (29.8)	48 (47.5)	
거주 상태	부모와 동 거	355 (72.4)	275 (70.3)	80 (80.8)	5.900
	단독가구 1인 전세	51 (10.4)	41 (10.5)	10 (10.1)	
	단독가구 1인 월세	84 (17.1)	75 (19.2)	9 (9.1)	
부모 소득		370.0(223.9)	371.1(224.2)	365.6(223.8)	0.216

*p<.05, **p<.01,***p<.001

<표41>은 부채상환 완료여부에 따른 경제적 요인 특성 비교이다.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활비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부채상환 중인 집단의 월평균 본인소득은 157.9만원인데 반해, 부채상환완료 집단은 205.6만원으로 부채상환완료집단의 월평균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도 소득이 많은 만큼 부채상환 완료집단의 생활비가 높게 나타났다. <표40>의 직업안정성과 같은 맥락으로 직업안정성이 높아지는 만큼 월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41> 부채완납 여부에 따른 경제적요인 특성

단위: 만원 (S.D)

구 분	전체 n=500	부채 상환 중 n=399	부채 상환 완료 n=101	x ² /t
월평균소득	167.5 (106.5)	157.9 (107.2)	205.6 (95.0)	-4.08 ***
월평균생활비	75.6 (58.9)	72.7 (60.8)	87.3 (49.5)	-2.24 *
총자산	3185.9(7527.2)	2965.4(7632.0)	4056.8 (7067.0)	-1.30

*p<.05, **p<.01,***p<.001

<표42>는 부채완납 여부에 따른 금융역량 요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태도와 금융기능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돈과 부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금융태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를 나타낸다. 부채 상환 중 집단이 다소 돈과 부채태도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부채상환을 완료한 집단은 돈과 부채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소 누그러져 부채 상환 중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실천적인 것을 나타내는 금융기능은 부채완납 집단의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부채완납 여부에 따른 금융역량요인 특성

단위: 점 (S.D)

구 분	전체 n=500	부채 상환 중 n=399	부채 완납 n=101	x ² /t
금융지식	6.28 (1.8)	6.26 (1.8)	6.37 (1.8)	-0.51
금융태도	5.39 (1.0)	5.44 (1.0)	5.19 (0.8)	2.26 *
금융기능	7.46 (1.1)	7.36 (1.1)	7.86 (1.1)	-4.07 ***

*p<.05, **p<.01,***p<.001

<표43>은 부채완납 여부에 따른 심리적 편향 요인의 특성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자기과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채상환 완료 집단에서 자기과신이 있다고 측정된 비율이 32.7%로 부채 상환 중 집단의 21.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혜진과 장연주(2015)의 연구결과에서 자기과신 성향이 높을수록, 목표가 명확하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성향이 높아 긍정적 재무관리행동을 한다는 연구결과처럼, 어느 정도 자기과신 성향은 부채완납에도 영향을 주는 내적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험수용성향의 경우 어떠한 집단 간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안정형에 속하고 있었다. 손지현과 주소현(2016)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재무계산능력과 위험수용성향 관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계산능력이 높고, 연령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이하의 위험을 선택할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채완납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 수준의 위험수용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된다.

<표43> 부채완납 여부에 따른 심리적 편향요인 특성

단위: 점 (S.D)

구 분		전체 n=500	부채상환 중 n=399	부채 완납 n=101	χ^2/t
주관적 전망	비관적	40 (8.0)	29 (7.3)	11 (10.9)	2.95
	보통	211 (42.2)	175 (43.9)	36 (35.6)	
	낙관적	249 (49.8)	195 (48.9)	54 (53.5)	
위험 수용 성향	안정형	323 (64.6)	260 (65.2)	63 (62.4)	0.28
	보통	120 (24.0)	94 (23.6)	26 (25.7)	
	공격형	57 (11.4)	45 (11.3)	12 (11.9)	
자기과신	없음	383 (76.6)	315 (78.9)	68 (67.3)	6.07 *
	있음	117 (23.4)	84 (21.1)	33 (32.7)	

*p<.05, **p<.01,***p<.001

정리하면, 부채완납집단의 경우 현재 상환중인 집단에 비해 연령이 다소 높고, 직업안정성이 높았다. 직업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소득이 높고, 이에 따른 월평균 지출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돈과 부채에 대한 태도가 다소 긍정적이며, 실천적 의미의 금융기능이 더 높아 더 실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채 상황중인 집단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자기과신 성향을 가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부채완납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

부채완납 여부에 따른 집단의 영향요인 분석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양적 변수가 아닌 두 집단으로 나눈 이분 변수일 때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최대우도 추정법을 통하여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Likelihood)을 최대화 하는 값을 찾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이때의 추정된 B값은 다른 독립변수를 일정하게 하였을 때, 해당 독립변수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exp(B)$ 만큼 증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귀분석에서의 t검정처럼 로지스틱 회귀계수 검정은 Wald 값으로 검정한다(성태제, 2009).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 전,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았다. 다중공선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8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보고, .6 이상의 값 일 때는 다중 공선성을 의심한다고 본다(이일현, 2014).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월 소득과 월 지출의 상관계수가 .60으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월 지출변수를 제외한 나머지변수를 통해 부채상환완료여부에 따른 영향요인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연구문제 2-2]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금융역량 요인, 심리적 편향요인을 모두 포함한(월 지출 변수 제외)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부채상환완료여부에서 부채상환중인 집단을 0으로, 부채상환 완료집단을 1로 하여 분석하였다.

<표44>는 부채완납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이다. 여타변수의 영향력을 조절한 상태에서의 각 변수 별 부채 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 본 로짓분석의 결과는 연령에 높을수록, 부모님과 동거하는 집단에 비해 단독 1인 전세가구인 경우 부채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인 경우 부채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신(2004)의 대학생 대상 부채 태도와 현금서비스 이용행동 연구에서도 성별은 중요한 변수였다. 남학생이 부채에 대한 태도가 관대하고, 현금서비스 경험이 높고, 이용금액이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여성의 경우가 더 완납가능성이 적게 나타났다. t-test의 결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 완납한 자가 많았으나, 여나 변수의 영향력을 조절한 상태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는 총자산의 B값이 0으로 나타나, 회귀식에 무영향을 주는 값으로 나타났다. 금융역량 요인의 경우는 부채완납여부와 관련된 유의한 영향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적 편향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5년 후의 주관적 경기전망 변수이다. 향후 5년 후 본인의 소득과 경제전망을 낙관할수록 부채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적었다.

<표44> 부채완납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구 분		B	Wald		Exp (B)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여성	-.830	9.304	**	.436
	연령		.220	18.860	***	1.246
	교육수준	4년제 이상	-.218	.551		.804
	직업안정성	중(계약직)	-1.551	3.668		.212
		상(정규직)	-.014	.002		.986
	거주상태	단독가구1인전세	1.146	7.810	**	3.145
		단독가구1인월세	.835	2.317		2.305
	부모 소득		.000	.009		1.000
경제적 요인	월평균소득		.002	2.300		1.002
	총자산		.000	4.704	*	1.000
금융역량 요인	금융지식		-.043	.224		.958
	금융태도		-.168	1.623		.846
	금융기능		.260	3.827		1.297
심리적편향 요인	주관적전망	보통	-.006	.000		.994
		낙관적	-.566	3.972	*	.568
	위험수용성향	보통	-.079	.037		.924
		공격형	.181	.164		1.199
자기파신	있음	-.574	3.004		.564	
상수항			-8.224	18.871	***	.000
-2로그우드	406.761					
cox 및 snell R ²	.162					
Nagelkerke R ²	.255					
x ²	86.393***					
분류의 정확도	80.0					

*p<.05, **p<.01,***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더미변수기준: 성별(남성), 교육수준(기준 2-3년제 졸), 거주상태(부모와 동거), 직업안정성(하), 주관적 전망(비관적), 위험수용성향(안정), 자기파신(없음)

종속변수기준: 부채 상환 중 (0), 부채완납 (1)

정리하면 부채완납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남성일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에 비해 비동거하는 단독 1인 전세가구의 경우 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주관적전망을 낙관하는 경우에는 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적었다. 즉, 학교나 직장 등의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 주거의 안정성이 부채완납여부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박종욱(2016) 연구에서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자가에 비해 연체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풀이된다. 차경욱(2007)의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비용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합리적 재무관리 행동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부모와 비동거하는 경우 중에서도 어느 정도 주거권이 안정되어 있는 단독 1인 전세가구에서 완납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관적 전망을 낙관하는 경우 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결과는 김지섭(2014), 심영(2017)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연구결과였다. 즉,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게 되면 부채를 좀 더 빌리게 되어 결국 부채상환 기간이 길어지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3. 부채상환가능성관련 영향요인

연구문제 3에서는 조사대상자 500명중 부채 완납자 101명을 제외한 총 399명의 현재 부채 상환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이 객관적,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집단 구분은 선행연구의 중기부채부담지표에 해당하는 총부채/금융자산 비율을 사용 하고, 최현자와 이희숙과 양세정과 성영애(2003)의 지표였던 10을 준거기준으로 삼았다. 주관적 부채 상환 가능성 측정은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성,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도, 전반적 경제상태 만족도 3가지로 측정하였다.

1) 부채 상환중인 청년특성

<표45>는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집단별 인구통계학적 · 경제적 특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직업안정성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객관적 부채상환이 가능한 집단]은 연령이 1.3세 높으며, 4년제 대졸 이상이 다소 많으며, 무직의 비율이 10.9%로 12.2%나 낮아졌다. 직업안정성(상)의 정규직 비율도 높아졌다. 직업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특성인 월평균 소득과 총자산 역시 유의미하게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집단]에서 높았다. 또한, 자산역시 상환 가능집단에서 4175.2만원으로 상환 불가집단에 비해 2.15배나 더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5>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세(S.D), 만원(S.D))

구 분	전체 n=399	객관적 부채상환 불가 집단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 집단	x ² /t	
		n=216(54.1)	n=183(45.9)		
성별	남성	182 (45.6)	101 (46.8)	81 (44.3)	.29
	여성	217 (54.4)	115 (53.2)	102 (55.7)	
연령		26.2 (2.97)	25.6(2.85)	26.9(2.96)	-4.285 ***
교육 수준	2-3년제 대졸	131 (32.8)	82(38.0)	49(26.8)	5.622 *
	4년제 대졸 이상	268 (67.2)	134(62.0)	134(73.2)	
직업 안정성	하(무직)	70 (17.5)	50(23.1)	20(10.9)	12.161 **
	중(계약직)	210 (52.6)	112(51.9)	98(53.6)	
	상(정규직)	119 (29.8)	54(25.0)	65(35.5)	
거주 상태 (부모와 동거)	부모와 동거	275 (70.3)	148(69.5)	127(71.3)	.322
	단독가구 1인 전세	41 (10.5)	24(11.3)	17(9.6)	
	단독가구 1인 월세	75 (19.2)	41(19.2)	34(19.1)	
부모 소득		371.1 (224.2)	361.3 (225.0)	382.6 (223.3)	- .945
월평균 소득		157.9 (107.2)	138.2 (104.4)	181.2 (106.0)	-4.070 ***
월평균 생활비		72.7 (60.8)	68.4 (61.6)	77.8 (59.6)	-1.543
총자산		2965.3 (7632.0)	1940.4 (6058.8)	4175.2 (9016.3)	-2.942 **

*p<.05, **p<.01,***p<.001

<표46>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결과이다. 남성이며, 연령이 높아지고, 직업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 상황 가능성도 문제가 없어지고,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도 그렇지 않은 다소 무난한 방향으로 기울고, 전반적 경제상태 만족도에서도 보통 수준에 좀 더 근접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46>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

구 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상환 가능성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		전반적 경제상태		
	전체평균		2.76(1.14)		2.57(0.87)		
성별	남성 (n=182)	3.34 (0.96)	2.05*	2.79 (1.10)	2.63 **	2.68 (0.89)	3.59***
	여성 (n=217)	3.13 (1.04)		2.50 (1.08)		2.36 (0.84)	
연령	20대 (n=339)	3.15 (1.01)	-3.62***	2.58 (1.10)	-2.21*	2.46 (0.87)	-2.68**
	30대 (n=60)	3.65 (0.86)		2.92 (1.08)		2.78 (0.85)	
교육수준	2-3년제 대졸 (n=131)	3.09 (0.96)	-1.87	2.45 (1.02)	-2.28*	2.45 (0.82)	-0.89
	4년제 대졸 이상 (n=268)	3.29 (1.03)		2.72 (1.13)		2.53 (0.91)	
직업 안정성	하 (무직) (n=70)	2.76 ^a (0.96)	17.35***	2.36 ^a (1.14)	4.70*	2.20 ^a (0.88)	9.34***
	중 (계약직) (n=210)	3.17 ^b (0.97)		2.60 ^{ff} (1.07)		2.47 ^b (0.87)	
	상 (정규직) (n=119)	3.60 ^c (0.98)		2.85 ^b (1.09)		2.75 ^c (0.83)	
거주상태 (부모와 동거)	부모와 동거 (n=275)	3.16 (1.01)	1.10	2.58 (1.11)	0.82	2.51 (0.91)	0.07
	단독가구 1인전세 (n=41)	3.27 (0.92)		2.80 (0.95)		2.51 (0.71)	
	단독가구 1인월세 (n=76)	3.35 (1.02)		2.65 (1.08)		2.47 (0.84)	

*p<.05, **p<.01,***p<.001

즉,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서는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 안정성이 높고, 월소득과 총자산이 높아질수록 상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관적인 부채상환 가능성에서는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업안정성이 좋아질수록 상환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역량요인 특성

<표47>은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집단여부에 따른 금융역량 특성 차이 결과이다.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집단]에서 금융지식과 금융기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2의 부채완납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금융태도와 기능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나, 객관적 부채 상환 가능집단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금융 지식과 금융기능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표47>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 집단별 금융역량 특성

(단위: 만원(S.D))

구 분	전체	객관적 부채상환 불가 집단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 집단	χ^2/t
금융지식	6.3 (1.8)	6.0(1.8)	6.5(1.8)	-2.782 **
금융태도	5.4 (1.0)	5.4(1.1)	5.5(1.0)	- .621
금융기능	7.4 (1.1)	7.1(1.1)	7.7(1.0)	-5.314 ***

*p<.05, **p<.01,***p<.001

<표48>은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으로 살펴본 금융역량 특성이다.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이하 집단과 평균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상환 가능성 측정에서는 금융지식, 태도, 기능 모두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 모두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과 전반적 경제상태 측정에서는 금융지식과 태도의 실천력인 금융기능이 평균이상인 집단에서 부담이 다소 완화 되었다. 박종옥(2016)의 연구에서는 신용관리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미연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부채와 관련된 지식수준만 측정했을 경우 이에 부채문제가 발생한 집단이 부채관련 정보를 많이 찾아보아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미연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지식수준과 부채에 대한 지식수준을 함께 측정하여,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상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표48> 금융 역량 집단별 주관적 상환 가능성

구 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상환 가능성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		전반적 경제상태	
금융 지식	평균이하집단 (n=201)	3.06 (0.99)	-3.204**	2.63 (1.16)	-0.40	2.51 (0.87)	0.142
	평균이상집단 (n=198)	3.38 (1.00)		2.63 (1.04)		2.50 (0.88)	
금융 태도	평균이하집단 (n=195)	3.09 (0.97)	-2.558*	2.55 (1.03)	-1.338	2.50 (0.92)	-0.197
	평균이상집단 (n=204)	3.35 (1.03)		2.70 (1.16)		2.51 (0.83)	
금융 기능	평균이하집단 (n=180)	2.89 (0.94)	-6.18***	2.44 (1.08)	-3.17**	2.40 (0.87)	-2.21*
	평균이상집단 (n=219)	3.49 (0.98)		2.79 (1.09)		2.59 (0.88)	

*p<.05, **p<.01,***p<.001

즉,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집단]의 경우 금융지식과, 기능이 높았고,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서도 금융지식과 기능이 평균이상이고, 돈과 부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부채상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심리적 편향요인 특성

<표49>는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집단] 여부에 따른 심리적 편향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주관적 전망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있는 집단이 48.9%, 보통이 43.9%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에 대한 본인과 지인이 나를 보는 위험수용성향은 투자위험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안정형 성향이 6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객관적으로 측정한 재무지식보다 본인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자기과신의 측정 결과 21%가 과신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9>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 집단별 심리적 편향요인 특성

(단위: 만원(S.D))

구분	전체	객관적 부채상환 불가 집단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 집단	x ² /t	
주관적 전망	비관적	29 (7.3)	15(6.9)	14(7.7)	1.136
	보통	175 (43.9)	100(46.3)	75(41.0)	
	낙관적	195 (48.9)	101(46.8)	94(51.4)	
위험 수용 성향	안정형	260 (65.2)	140(64.8)	120(65.6)	0.073
	보통	94 (23.6)	52(24.1)	42(23.0)	
	공격형	45 (11.3)	24(11.1)	21(11.5)	
자기 과신	없음	315 (78.9)	173(80.1)	142(77.6)	0.372
	있음	84 (21.1)	43(19.9)	41(22.4)	

*p<.05, **p<.01,***p<.001

<표50>은 심리적 편향 성향에 따른 주관적인 부채상환 가능성 측정문항의 결과이다. 주관적 전망이 낙관적일수록 원금 및 이자상환의 가능성을 좀 더 무난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도 부담감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좀 더 미래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볼수록 주관적인 부채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기 과신성향이 있는 집단이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이 자기과신이 없는 집단에 비해 덜 부담스럽고, 본인의 전반적 경제상태에 덜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즉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일수록 주관적인 상태가 중요한데,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의 자기과신이 있을 때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덜 스트레스를 받고 해결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표50> 심리적 편향 집단별 주관적 상환 가능성

구분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가능성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	전반적 경제상태				
주관적 전망	비관적(N=29)	2.93 ^a (0.84)	3.30*	2.38 ^a (1.05)	9.87 ***	2.31 (0.89)	1.87	
	보통(N=175)	3.14 ^{ab} (1.01)		2.42 ^a (1.06)				2.43 (0.83)
	낙관적(N=195)	3.34 ^b (1.01)		2.86 ^b (1.10)				2.60 (0.91)
위험 수용 성향	안정형(N=260)	3.21 (1.00)	0.63	2.59 (1.13)	0.70	2.45 (0.90)	2.08	
	보통(N=94)	3.18 (1.03)		2.74 (1.02)		2.66 (0.80)		
	공격형(N=45)	3.38 (1.01)		2.62 (1.11)		2.53 (0.89)		
자기 과신	없음(N=315)	3.20 (1.02)	-0.76	2.57 (1.08)	-2.15 *	2.44 (0.85)	-2.90 **	
	있음(N=84)	3.30 (0.95)		2.86 (1.14)		2.75 (0.94)		

*p<.05, **p<.01,***p<.001

2)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현자와 이희숙과 양세정과 성영애(2003)의 중기 부채부담지표인 총부채/금융자산이 10배가 넘는지를 준거기준으로 하였다. 청년의 경우 사회초년생이므로 현재는 금융자산이 적더라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금융자산이 많아질 수 있는 연령대이므로, 선행연구 중에서 가장 관대한 수치인 최현자등(2003)의 10배미만을 준거기준으로 삼았다. [연구문제 3-2]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금융역량 요인, 심리적 편향요인을 모두 포함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월 지출 변수 제외)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서 총부채/금융자산>10 집단을 0으로, 총부채/금융자산<10을 1로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후 대학 재학 시 부채경험이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표51>은 여타변수의 영향력을 조절한 상태에서의 각 변수 별 객관적 부채상환가능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여타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대학 재학 시 부채경험이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대학 재학 시 대출 경험에 있는 경우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에,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과, 금융기능만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식과 태도의 실천력인 금융기능 역량이 높아질수록, [객관

적 부채상환 가능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청년의 경우, 다른 요인보다 실천능력인 금융기능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51>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부채 상환 중 집단 (n=399)		
			B	Exp(B)	Wald
인구 통계학적 요인	성별	여성	-.353	.703	2.287
	연령		.098	1.103	4.672 *
	교육수준	4년제 이상	-.370	.691	2.314
	직업 안정성	중 (계약직)	-.158	.854	.117
		상 (정규직)	.171	1.186	.329
	거주 상태	단독가구 1인 전세	.207	1.230	.504
		단독가구 1인 월세	-.061	.941	.020
	부모 소득		.000	1.000	.007
경제적 요인	월평균소득		.002	1.002	1.832
	총자산		.000	1.000	.102
금융 역량 요인	금융지식		.037	1.038	.248
	금융태도		.196	1.216	2.788
	금융기능		.440	1.552	12.669 ***
심리적 편향 요인	주관적 전망	보통	-.001	.999	.000
		낙관적	-.238	.788	.966
	위험 수용 성향	보통	.153	1.166	.169
		공격형	.098	1.102	.055
	자기 과신	있음	-.115	.891	.140
대학 재학 시 부채경험 (유)		-.223	.216	.800	
상수항			-7.514	.001	18.574 ***
-2로그우드			486.046		
cox 및 snell R ²			.126		
Nagelkerke R ²			.169		
χ ²			52.858***		
분류의 정확도			66.0		

*p<.05, **p<.01,***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더미변수기준: 성별(남성), 교육수준(기준 2-3년제 졸업), 거주상태(부모와 동거), 직업안정성(하), 주관적 전망(비관적), 위험수용성향(안정), 자기과신(없음), 대학 재학 시 부채경험(무)

종속변수기준: 총부채/금융자산>10 (0), 총부채/금융자산<10 (1)

3)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년들의 특성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금융역량 요인, 심리적 편향요인)이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후 대학 재학 시 부채경험이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종속변수인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은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상황 가능성,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도, 전반적 경제상태만족도 문항의 평균값을 연속변수로 하였다.

<표52>는 여타변수의 영향력을 조절한 상태에서의 각 변수 별 주관적 부채상환가능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여타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학 재학 시 부채경험이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대학 재학 시 부채경험이 있는 경우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 재학시의 부채경험은 현재의 부채상환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수 중 성별, 부모소득, 본인소득, 금융태도, 금융기능, 주관적 전망의 낙관적 성향 변수가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일수록 주관적 부

채 상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부모소득과 본인소득은 B값이 0에 가깝지만 다른 독립변수가 동일할 때 부모소득이 1증가할 때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은 미약하게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에 대한 태도와 부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지식과 태도의 실천력인 금융기능이 높을수록 주관적 부채 상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편향 요인 중 5년 후 본인의 소득과 경기전망이 낙관적일수록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연구문제2의 부채완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경기전망을 낙관할 때 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주관적으로는 낙관적인 성향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집단이 완납가능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민주와 이희숙과 김민정(2012)의 연구에서는 2011 통계청 가계금융조사를 활용한 연구결과 결과 소득과 자산이 적을수록 주관적 부채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부채의 경우 주관적 부채 상환 가능성에 부모소득과 본인 소득 등 경제적 요인은 그 영향력이 미약하고, 그보다는 돈과 부채에 대한 다소 보수적인 태도, 금융관련 실천력, 미래에 대한 낙관적 성향의 내적인 요소가 부채상환 가능성에 더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표52>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B	t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여성	-.688 -3.146 **
	연령		.047 1.099
	교육수준	4년제 이상	.146 .633
	거주구분	비동거 전세	.181 .511
		비동거 월세	.043 .156
	직업안정성	중	.259 .790
		상	.532 1.238
부모소득		.002 3.532 ***	
경제적 요인	본인소득		.004 2.858 **
	총자산		1.976E-5 1.163
금융역량 요인	금융지식		-.071 -1.018
	금융태도		.421 3.882 ***
	금융기능		.361 3.249 **
심리적편향 요인	주관적전망	보통	.268 .636
		낙관적	1.036 2.428 *
	위험수용 성향	보통	-.047 -.185
		공격	-.197 -.565
자기과신	있음	.479 1.646	
대학 재학시 부채경험 (유)		-1.026 -2.283 *	
상수항		1.492 .924	
F		8.349***	
R ²		.295	

*p<.05, **p<.0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더미변수기준: 성별(남성), 교육수준(기준 2-3년제졸), 거주상태(부모와 동거), 직업안정성(하), 주관적전망(비관적), 위험수용성향(안정), 자기과신(없음)
대학 재학시 부채경험(무)

정리하면,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집단]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안정성, 월 소득, 총자산이 높은 집단이었다. 또한, 금융지식과 기능이 높았다. 여타변수의 영향력을 조절한 상태에서는 연령과 금융기능이 영향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서는 남성일수록, 연령, 직업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상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었다. 금융역량에서도 평균이상일 경우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이 높았다. 여타변수의 영향력을 조절한 상태에서는 남성일수록, 금융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금융기능이 높을수록, 주관적 전망이 낙관적일수록 부채상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대학재학시의 부채경험이 있는 경우도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부적영향을 주는 부담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별로, 직업, 소득, 자산 등이 더 높은 집단이 부채상환가능성이 높았지만, 여타변수를 조절한 상태에서 청년의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객관적, 주관적 상환가능성 모두 결국, 실천력 등의 내적요인이 중요한 영향 요인임으로 나타났다.

제 6 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채를 경험한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금융역량, 심리적 편향특성이 부채완납여부와 부채상환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하여 만34세 이하의 2년제 대학이상을 졸업하고, 미혼이며,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재학 시 학기별 대출한 학자금 총액은 평균 1009.6만원 이었다. 이중 44.3%를 상환하고 현재는 562.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생활비는 대학 재학시절 165.6만원을 빌리고, 33%를 상환하고 현재 11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과 일반대출을 포함한 졸업 후에 빌린 전체 부채총액은 508.1만원이고 이중 28.4%를 갚고, 현재 363.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즉, 현재 청년들의 평균 부채 보유 총액은 총 1,037.1만원이고, 학자금은 이중 54%를 차지하며, 졸업 후 대출이 35%, 재학 시 생활비대출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부담이 여전히 가장 컸다.

부채 유형으로 대학 재학 시 학자금 대출 유형의 61.8%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이 될 때까지 이자까지도 유예되는 제도이다. 또한, 졸업 후 부채를 경험한 대상자의 65.7%가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1.8%는 신용카드 카드를 이용하고 있었다. 졸업 후 일반대출 사유는 생활비가 전체의

29.4%, 주거비 24.5%, 내구재 구입비 13.7% 순이었다. 생활비나 전월세 등의 주거비 마련을 위해 일반 신용대출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상환특성을 살펴보면, 부채의 주상환자는 [재학 시 부채]의 경우 75.8%, [졸업 후 부채]는 87.7%가 본인이었다. 대부분이 연체 경험이 없었지만, 일부 연체자의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채에 대해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현재 부채 상환은 무난하지만,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은 다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금융역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지식 측정 내용 중 정부부채 지원제도(정답률 18.8%), 제2금융금리(정답률 39.6%)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 청년들의 돈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나, 부채에 대한 태도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부채상환 완료집단에서는 전반적 금융실천력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채 완납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특성 비교에서 부채상환 완료집단의 경우 여성이 많고, 연령이 다소 높고, 직업안정성(상)에 해당하는 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직업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부채상환 완료집단]의 월평균 소득이 더 높았고, 더 많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부채완료집단의 돈과 부채에 대한 태도가 상환 중 집단보다 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미 완료를 하여 스트레스 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부채완납집단에서 금융 지식과 태도의 실천력이 더 높았고, 자기과신 성향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채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남성일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님과 동거하는 집단에 비해 비동거하는 단독 1인 전세가구 일수록 부채 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향후 5년 후 본인의 소득과 경제전망을 낙관할수록 부채 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셋째, 현재 부채상환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집단]의 경우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다소 높으며, 직업안정성(상)의 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았고, 그에 따른 소득증가, 지출증가, 총자산 증가가 있었다. 또한, 지식과 기능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변수의 영향력을 조절한 상태에서는 연령과 금융기능이 영향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서는 남성일수록, 연령, 직업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었다. 금융역량에서도 평균 이상 집단일 경우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타변수의 영향력을 조절한 상태에서는 남성일수록, 돈과 부채의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금융지식과 기능의 실천력인 금융기능이 높을수록, 5년후 본인의 소득과 경기전망이 낙관적일수록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대학재학시의 부채경험이 있는 경우도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부담을 주는 부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완납여부와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정리하면, 부채 완납여부에는 성별과, 연령증가, 부모님과 비동거하지만 주거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전세가구일 경우, 그리고, 경기전망을 너무 낙관하지 않을 경우 완납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상환하고 있는자 중에서는 객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는 연령과 금

융기능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주관적인 부채상환 가능성에는 대학재학시절의 부채경험이 있는 경우 부채상환 가능성에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성별과, 금융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실천력인 금융기능이 높을수록, 경기전망을 낙관할수록 상환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1) 정책적 측면에서의 제언

첫째, 부채보유 특성에서 살펴보면, [재학 시 부채]에서 단순히 학자금 대출만 받은 경우보다 생활비 대출을 함께 받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재학 시에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경우 [졸업 후 부채]도 생계를 위한 부채 경험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졸업 후 부채] 사유도 생활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졸업 후 부채를 경험한 대상자의 65.7%가 일반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바, 연체기록이 없는 청년층의 신용등급은 중위권으로 분류되므로, 대출금리 적용 시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11.8%는 신용카드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은행권 대출이 이미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재학 시 부채]부터 이루어지는 청년 부채문제는 단순히 학자금 문제가 아닌 생활비 문제를 상당수 포함 한다. 이에 졸업이후에도 청년을 위한 생계비 관련 중금리 대출 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졸업 후 부채]를 받게 된 이유로 주거비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채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도 부모와 비동거시 비교적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된 전세가구 일수록 부채 완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청년 부채 문제는 주거안정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부채 정책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금융 지식측정에서 정부부채 지원제도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처럼, 부채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도 정부부채 지원제도를 모르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짐작된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부채관련 지원제도를 청년의 눈높이에서 홍보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셋째, 부채 상환 시 부채의 주상환자는 대부분 본인 이었다. 청년 부채 정책은 가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결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채에 대해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현재 부채 상환은 무난하지만,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은 다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정서적으로 부채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부채 완납집단이 부채 상환중인 집단에 비해 금융기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채상환 가능중인 집단의 객관적, 주관적 부채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아도, 지식과 태도의 실천력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은 소득보다도 본인의 상환의지와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들은 실천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요인이므로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부채상환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정책보다는 부채상환 중 이자지원 등 상환

기간 중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

2) 교육적 측면에서의 제언

첫째,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직업의 안정성을 갖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소득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부채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본인의 소득으로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대학 재학 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유형을 선택했다면 이자상환기간을 길게 잡고, 원금을 상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취직 시까지 부채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일정 소득발생 이전까지 이자까지 유예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확대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졸업 후 대출]의 부채유형을 보면, 신용카드 카드론 사용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어쩌면, 자신이 거래하는 조건 금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편리성 위주로 대출을 받고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지식에서도 제2 금융 금리를 측정한 문항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금융 교육 시에는 금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채완납 가능성과 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식과 태도의 실천인 금융기능 역량이 중요한 요소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경우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넷째, 대학재학시절 경험한 부채가 문간에 맡겨 놓기의 심리행동처럼 다음 대출행동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한 학기, 한 학기 대출에 맡겨 놓는다면 돈과 부채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졸업 이후에도 일반

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돈과 부채에 대해 지나치게 허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교육 내용을 담아야 하겠다.

3)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 심리적 측면에서의 제언

첫째, 심리적 편향에서 주관적 경기전망을 낙관할수록 부채 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감소하지만, 주관적인 부채 상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었다. 심영(2017)의 연구결과에서도 경제상황의 낙관이 부채 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제상황의 낙관은 다소 심리적 편향 현상으로 보인다. 불안정한 소득환경이거나, 지나치게 낙관할 경우 미래시점의 가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이 아닌 현실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위험수용성향의 경우는 부채완납과 상환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고, 집단의 구분 없이,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은 대부분 안정형에 속하고 있었다.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은 위험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이용할 때에는 비교적 대출 금리가 높은 개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과 금리비교와 계산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보완과, 금리비교 등의 교육 절충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 과신의 경우 부채 상황중인 집단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자기과신 성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채상환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자기 과신이 아닌 자신감이나 신념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심리적인 지지도 필요하다.

4)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후속연구로 본인 소득과 지출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생활비 지출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연구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대학 재학 중인 자들과 졸업생과의 비교연구 혹은 부채 미경험자와 경험자와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이 모든 연구는 부채주상환자가 대부분 본인임을 감안하여, 청년 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레이밍 이론이나, 쌍곡형 할인 등 다른 행동경제학의 심리적 편향 현상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34세 이하의 부채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샘플을 구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고, 평균 26.57세로 대학을 갓 졸업한 대상자가 많아져 청년부채 연구에 다소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겠다. 또한, 월부채상환액을 측정하고자 했으나 현재 이자만 상환 하고 있거나 이자도 유예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상환중이라 하더라도 매달 얼마를 납입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과를 살펴보기 어려웠던 것이 본 연구의 아쉬움과 한계로 남는다.

참고문헌

곽민주, 이희숙, 김민정(2012). 주관적 부채부담에 따른 부채증가 가구 특성과 영향요인. *소비자문제연구*, 43, 157-175.

금융감독원(2017.1.23.). 2016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17.3.31.).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 보도자료.

김경자(2003). 대학생들의 화폐태도와 개인재무관리 실태, *소비문화연구*, 6(3), 33-50.

김기욱, 이승신(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1.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김민정, 이하나(2017). 조절초점 성향에 따른 부채사용 의사결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0(1), 291-319.

김보경(2017). *청년 1인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시월·조향숙(2014). 단독가구의 부채유형이 가계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7(1), 157-178.

김영신(2004). 대학생소비자의 부채에 대한 태도와 현금서비스 이용 행동. *소비문화연구*, 7(4), 23-41.

김우영, 김현정(2010)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16(1), 39-78.

김정현(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및 지수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현, 최현자(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개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3), 1-36.

김종인, 우주형, 이준우(2007). *장애인 복지론*. 서울: 서현사.

김지섭(2014). *가계부채 증가원인과 감축방안: 낙관적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4-05.

나혜림, 조혜진, 최현자(2014). 금융소비자의 펀드투자이해력에 있어서 자기과신과 과소평가의 결정요인 및 펀드투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7(3), 203-232.

나혜림(2016). 금융소비자의 은퇴준비과정 단계별 심리적 편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종욱(2016). *소비자의 금융채무연체와 채무불이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주영, 정운영(2013). 재무걱정과 심리적 오류: 자기과신과 후회회피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6(2), 229-246.

박창균, 연태훈, 허석균(2016). 가계의 금융지식 및 금융행태에 관한 실증연구-가계부채를 중심으로-, *금융지식연구*, 55-81.

배순영·천현진(2010). *소비자역량의 측정 및 평가*. 한국소비자원

- 정책연구보고서 10-07.
- 백은영·주소현(2011). 우리나라 투자자의 자기과신성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4(1), 29-53.
- 백진영(2014).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경험을 통해 본 신용과 부채 인식의 형성.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인주, 두경자(2007). 대학생 소비자의 화폐사용 태도와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재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23-43.
-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2004).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이용한 가계유형의 분석. *소비자학연구*, 15(3), 155-171.
- 성영애(2006)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변동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7(4), 39-60.
- 성영애·정희영(2008).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무상태, 신용에 대한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의 분석: 연체미경험자와의 비교. *소비자학연구*, 19(4), 65-82.
- 성태제(2009). *알기쉬운 통계분석*. 학지사.
- 손지연(2015). *취약계층의 소비자역량 향상방안-금융소비자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 손지연 · 이경아(2014). *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 한국소비자원.
- 손지연 · 주소현(2016). 소비자의 재무계산능력과 위험수용성향의 관계분석. *소비자학연구*, 27(6), 105-127.
- 신용회복위원회. 2016년 3분기 신용회복지원실적 보도자료.
- 심영(2015). 부채유형 선택행동으로 본 저소득층 가계의 금융신용 접근성. *소비문화연구*, 18(3), 85-111.
- 심영(2017). 가계의 주관적 전망이 부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0(1), 201-234.
- 안창희, 정순희(2006). 개인재무교육이 재무행동 및 객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7(2), 197-219.
- 안창희(2008). 재무행동과 재무관리스트레스 그리고 재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4), 107-123.
- 양세정(2010). 적자가계의 특성 및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135-159.
- 양세정, 정지영(2010). 국내 재무설계전문가(FP:Financial Planner)를 대상으로 한 가계재무지표값 조사. *Financial Planning Review*, 3(1), 109-137.
- 양세정, 주소현, 차경옥, 김민정(2013).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 제안.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43-181.
- 앤서니 기든스(2011).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 우석봉(2006).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에 따른 금융기관 이용행동 및 태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522-523.
- 유경원, 이해은 (2010).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 윤소영, 2010). 여가에 대한 생애주기 관점과 여가생활주기 단계별 모형개발. *한*

- 국가정관리학회지, 28(4), 103-115.
- 이경애·조주현(2013) 서울시 1인가구의 주거지 분포변화에 관한 연구- 연령별 성별 분포 변화를 중심으로, 부동산·도시연구, 6(1), 23-50.
- 이기춘, 양세정, 천경희, 김소라(2007). 소비자역량지수 개발 및 산출연구. (사) 한국소비자 교육지원센터.
- 이기춘,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성영애(2009). 소비자재무설계. 서울: 학현사.
- 이성림, 조유현, 이영애(2014). 투자권유준칙 상의 투자자 위험수용성향 평가척도의 검토. 소비자학연구, 25(2), 121-140.
- 이윤수, 우석진(2011). 주관적 기대가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축적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년학, 31(4), 855-870.
- 이은영, 허은정(2005) 부채가계의 연체행동 및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6(1), 179-194.
- 이은영, 조혜진 (2016). 보험이해력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9(3), 129-154.
- 이은희·유현정·이준영(2016). 20대 청년세대의 고민과 경제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주요 인터넷 게시판 분석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2) 121-143.
- 이일현.(2014). EastFlow 회귀분석. 한나래
- 이학식, 김영(2000).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적 행동이론의 평가와 대안적 견해. 소비자학연구, 11(2), 39-60.
- 이학식, 임지훈(2009). SPSS 16.0 매뉴얼. 법문사.
- 이희숙, 박민주(2016).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른 사회초년생의 신용·부채관리역량. 소비자문제연구, 47(2), 95-121.
- 정운영, 김은미(2016). 기초 및 심화 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른 금융자산 보유의 다양성. 금융교육연구, 1-23.
- 제미경, 전향란(2013).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소비자 불매운동 유형별 분석. 소비문화연구, 16(4), 191-213.
- 조동필(2003). 도시가계의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진, 최현자(2006). 소비자의 신용과다 사용 문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7(2), 155-178.
- 조혜진, 장연주(2015). 대학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 영향요인 비교연구: 목표설정, 계획, 자기과신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8(3), 199-222.
- 주소현(2009), 재무설계를 위한 행동재무학. FPBooks.
- 주소현(2017). 투자 위험수용성향 척도의 활용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8(1), 129-156.
- 주소현, 김정현(2011). 세대별 개인재무관리 관련 태도 및 행동분석: N, X, 베이비부머, 전정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3), 123-146.
- 주소현, 차경옥, 김민정, 김소연(2016). 소득계층별 재무상태 비교 및 Financial Fitness 분석: 가계수지, 부채부담, 투자성향 지표를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9(2), 1-37.

- 차경옥(2007). 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 유형별 특성 및 재무지식수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1), 1-14.
- 차경옥(2014). 위험감수성향 집단 구분과 금융자산 보유 특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0(1), 133-155.
- 차은영(2012). *소비의 경제학*. 오래.
- 최윤선(2014). *대학(원)생들의 부채에 대한 태도와 학자금대출 이용 행동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2014) 서울의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복지 수요, *도시와 빈곤*, 106, 5-61.
- 최재경(2017). *돈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투자행동예의 적용*.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현자, 성영애(2000).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93-207.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1.
- 한국신용정보원(2016). *금융소비자의 신용거래 현황과 연체 및 변제 특성 비교*. CIS 조사연구 2017-1호.
- 한국은행(2017).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 한국장학재단(2016). *한국장학재단 2015 통계연보*.
- 한동익, 최현자(2012).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5(4), 73-99.
- 한수연(2017). *투자자의 성인애착유형과 위험수용성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경옥(2002). 부채행동에 대한 소비자경험 및 태도분석: 채무, 채권, 보증, 채무면제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5(1), 15-46.
- 허경옥, 이현진, 최미향(2010). 가구주의 위험감수성향의 변화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구조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3(2), 105-134.
- 황남희(2013). 대출자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2(2), 115-136.
-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Carroll, C.D. (2001),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with and without liquidity constraints," *NBER Working Paper Series, No.8387*.
- Deaton, A. (1992), *Understanding Consumption, Claredon Lectures in Economics*, Oxford University.
- Fernatt, Fred, Sara Stolberg, Jaime Blue and John E, Grable(2012). A Risk Tolerance Paradox: Are Payday and Car Title Loan Customers Really More Risk Tolerant than Other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3(2), 214-229.
- Friedman, M. (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A study*

by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rinceton University Press.

Grable, John and Ruth H. Lytton (2003). The Development of a Risk Assessment Instrument: A Follow-Up Study. *Financial Services Review*, 12, 257-274.

Grable, John E. & Ruth H. Lytton(2001). Assessing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SCF Risk Tolerance Ques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2(2)*, 43-53.

OECD(2009). Financial Literacy and Consumer Protection: Overlooked aspects of the crisis.

OECD(2011).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Questionnaire and Guidance Notes for Conducting an Internationally Comparable Survey of Financial Literacy

OECD(2015). OECD/INFE Toolkit for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inclusion.

OECD(2016). OECD/INFE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competencies.

Peter T.(2009), Debt Literacy, Financial Experiences, and overindebtedness . <http://www.nber.org/papers/w14808>

Klontz, B.& Klontz, T. (2009). *Mind ove money: Overcoming the money disorders that threaten our financial health*. New York: Crown Business.

청년 부채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청년들의 부채에 관한 것으로, 향후 청년층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 문항을 빠짐없이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김태은(taeun78@naver.com)

■ 선별문항

0-1. 귀하의 연령은? (만 __세) (만 35세 이상 응답종료)

0-2.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이혼등) (①이 아닐 경우 응답 종료)

0-3. 귀하는 대졸자 이십니까? (2년제 이상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②번 응답종료)

0-4. 귀하는 갚아야 할 대출이 있습니까? (학자금, 주택대출, 기타대출포함)

① 예 ② 아니오 (② 응답종료)

㉠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태도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돈은 매력적인 것이다.					
1-2. 돈은 좋은 것이다.					
1-3. 돈은 중요하다.					
1-4. 나는 계획한 예산에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1-5. 나는 돈에 대해서 신중한 편이다.					
1-6. 나는 내 씀씀이를 관리한다.					
1-7. 돈은 성공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1-8.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					
1-9. 돈이 많으면 모든 일이 더 잘될 것이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0. 저축하는 것보다 당장 지출하는 것에 더욱 만족감을 느낀다.					
1-11.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을 빌려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12.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대출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1-13. 나는 제 1금융권(은행 등)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1-14. 나는 지금의 대출액을 갚을 능력이 된다.					

㉡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생각 및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평상시 나의 재정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편이다.					
2-2. 나는 돈에 대해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2-3. 나의 총부채액과 월 부채상환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2-4. 천만원을 3년동안 대출하였을 때, 매월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2-5. 대출시, 이자율과 기간, 나의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나는 각종 청구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불한다.					
2-7. 가능하면 소득 내에서 지출하려고 노력한다.					
2-8. 나는 이자가 더 저렴한 대출을 받거나, 이자가 더 높은 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2-9.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받는 편이다.					
2-10.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부채나 이자상환은 연체하지 않는다.					

㉓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생각 및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많이 나빠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약간 나아질 것이다	많이 나아질 것이다
3-1. 귀하의 소득은 현재와 비교하여 5년 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2. 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현재와 비교하여 5년 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3. 귀하가 투자를 할 때 주관적으로 판단한 본인의 투자유형은 어느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안정형: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② 안전투자형: (투자원금 손실 최소화)
- ③ 위험중립형: (일정수준 손실감수)
- ④ 적극투자형: (원금보전보다 위험감내하고 위험자산에 투자)
- ⑤ 공격투자형: (손실위험 적극 수용하고 고위험상품에 투자)

3-4. 투자위험에 대한 귀하의 태도에 대해 귀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귀하를 묘사한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투자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사람
- ② 투자위험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
- ③ 평균적인 투자위험을 가진 사람
- ④ 어느 정도 투자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
- ⑤ 높은 수익을 위해 큰 투자손실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

3-5.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재무지식 수준은?

- ① 매우 낮은 편이다.
- ② 낮은 편이다.
- ③ 약간 낮은 편이다.
- ④ 보통이다.

- ⑤ 약간 높은 편이다.
- ⑥ 높은 편이다.
- ⑦ 매우 높은 편이다.

3-6.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재무관리에 대한 관심수준은?

(재무관리란 수입과 지출관리, 신용과 부채,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노후설계를 전반적으로 포함한 개념)

- ① 매우 낮은 편이다.
- ② 낮은 편이다.
- ③ 약간 낮은 편이다.
- ④ 보통이다.
- ⑤ 약간 높은 편이다.
- ⑥ 높은 편이다.
- ⑦ 매우 높은 편이다.

㉔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4-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4-2.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3년제 대졸 이하 ② 4년제 대졸 이하 ③ 대학원 재학 이상

4-3. 귀하의 직업은?

- ① 정규직 봉급생활자 ② 계약직 봉급생활자 ③ 일반자영업자
- ④ 전문직(의사, 변호사등) ⑤ 프리랜서 ⑥ 일용근로자 ⑦ 무직 ⑧ 기타

4-4. 귀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____)

4-5.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상거주 ⑤ 기타 (____)

4-6.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시 ②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 ③ 광역시(인천제외) ④ 기타

■ 다음의 문항들은 다소 민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㉔ 귀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5-1.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제외)	월 평균 약 만원
5-2.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세금제외)	월 평균 약 만원
5-3. 본인의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부채상환액을 제외하고 실제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돈) (예: 식비, 외식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등...)	월 평균 약 만원
5-4. 월평균 생활비 중 주거비는 어느정도입니까? (예: 월세, 관리비등)	① 없음 ② 월 평균 만원
5-5.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받습니까?	① 받지 않음 ② 받음 (월 평균 만원)
5-6.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립니다?	① 드리지 않음 ② 드림 (월 평균 만원)

5-6~8. 본인의 현재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5-7.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을 모두 합한 금액)	① 없음	② 있음(약 만원)
5-8. 전월세 임대 보증금	① 없음	② 있음(약 만원)
5-9. 부동산 자산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의 현재 시가)	① 없음	② 있음(약 만원)

㉕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예	아니오	모름
6-1. 대출이자율은 저축이자율보다 높다.			
6-2. 부채를 사용하면 미래 소득을 미리 사용하는 것과 같다.			
6-3. 동일한 월급에 물가가 올라가면 생활수준이 낮아진다.			
6-4.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은 대체로 투자위험이 크다.			
6-5. 천만원을 투자하여 연 수익률이 20%이라면, 1년 뒤에 1,200만원이 된다.			

문 항	예	아니오	모름
6-6. 미취업 청년은 햇살론 대출 제도(연 4.5-5.4%) 대상자 이다.			
6-7. 돈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은 20%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6-8.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고나서 일정기간동안 이자만 갚는 기간을 말한다.			
6-9. 학자금 대출 연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반영되지 않는다.			
6-10.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이다.			

㉖ 대학시절 대출에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등록금(학자금) 대출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 귀하는 대학 재학시 등록금 대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①번 응답시-> 7-6문항으로)

7-2. 학자금대출은 **총 몇학기**를 받았습니까? (총 학기)

7-3. 학자금 대출 **총액**은 대략 얼마였습니까? (총 만원)

7-4. **현재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 총 잔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총 만원)

7-5. 학자금 **대출유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소득 발생시 의무적 상환하는 유형)
- ②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만 납부하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함께 납부)
- ③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 ④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모두 대출경험 있음

이번에는 대학시절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중 생활비 대출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 한국장학재단이나 기타기관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②번 선택시 -> 7-10 문항으로

7-7. **생활비 추가대출**은 총 몇 번을 받았습니까? (총 번)

7-8. 생활비 추가대출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총 만원)

7-9. **현재 남아있는** 생활비 추가대출 **총 잔액**은 얼마입니까? (총 만원)

7-10. 현재 (학자금+생활비)대출을 갚기 위해 납부하는 돈은 **매월** 얼마입니까?

- ① 없음 ② 월_____만원 ③ 상환유예 혹은 연체중 ④ 모름

①번 선택시 -> ⑧ 문항으로

7-11. 학자금(생활비대출포함) 대출은 **누가 갚고** 있나요?

- ① 본인 ② 부모님 ③ 본인+ 부모님 (부모님 비율 %) ④ 기타

7-12. 현재 학자금(생활비추가대출 포함) **대출 연체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연체경험 없음 ② 연체경험 있으나 현재 해결된 상태
- ③ 현재 3개월 미만 연체 ④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①,②번 응답시 ⑧ 문항으로
③,④번 응답시 -> 7-13 문항으로)

7-13. 가장 중요한 **연체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생활비 부족 ② 실직 ③ 투자실패 ④ 사업실패 ⑤ 병원비 ⑥ 기타

⑧ 대학 졸업 후 일반대출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반대출이라 하겠습니다.)

8-1.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마이너스통장이란 은행계좌에 신용대출 한도를 미리 설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는 통장이다

② 응답시 8-3 문항으로

8-2. 마이너스 통장의 **평균잔액**은 얼마입니까? (평균 만원)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 등의 일반 대출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카드론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 귀하는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 등의 일반대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①번 선택시 -> ⑨문항으로)

8-4. **총 몇 번**의 일반대출을 받았습니까?(장학재단 대출금제외) (총 번)

8-5. **일반대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장학재단 대출금제외) (총 만원)

8-6. 현재 남아있는 일반대출 총 잔액은 얼마입니까? (총 만원)

8-7. 일반대출을 받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비 ② 주택, 전세, 월세 등의 주거비 ③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 구입비
- ④ 생활비 ⑤ 질병등 병원비 ⑥ 창업 또는 사업자금 ⑦ 재테크(주식 및 부동산 투자) ⑧ 기타

8-8. 귀하께서 주로 이용한 일반대출의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 ① 일반신용대출 ②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③ 신용카드 카드로
- ④ 보험약관대출 ⑤ 주택담보대출 ⑥ 기타

8-9. 현재 일반대출을 갚기 위해 납부하는 돈은 매 월 얼마입니까?

- ① 없음 ② 월_____ 만원 ③ 상환유예 또는 연체중 ④ 모름

8-10. 일반대출은 누가 갖고 있나요?

- ① 본인 ② 부모님 ③ 본인+ 부모님 (부모님 비율 %) ④ 기타

8-11. 현재 한국장학재단 대출이외 일반대출 연체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연체경험 없음 ② 연체경험 있으나 현재 해결된 상태
- ③ 현재 3개월 미만 연체 ④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①,②번 응답시 9로
③,④번 응답시 -> 8-12 문항으로)

8-12. 가장 중요한 연체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생활비 부족 ② 실직 ③ 투자실패 ④ 사업실패 ⑤ 병원비 ⑥ 기타

9 부채부담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9-1. 본인 총부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상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황이 불가능하다.
- ② 상황이 다소 어렵다.
- ③ 무난하다.

④ 상황에 문제가 거의 없다.

⑤ 상황에 문제가 전혀 없다.

9-2. 부채가 본인의 생계에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부담스럽다.
- ② 약간 부담스럽다.
- ③ 무난하다.
- ④ 부담이 없는 편이다.
- ⑤ 전혀 부담이 없다.

9-3. 본인의 전반적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 ② 불만족스럽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스럽다.
- ⑤ 매우 만족스럽다.

ABSTRACT

Analysis of Debt Status of Young People and Factors Affecting Debt Repayment Possibility

Kim, Taeun

Dept. of Consumer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debt repayment, whether to complete the debt for young people who have experienced the debt, through demographic, economic, financial ability, and psychological bias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nducted 500 online surveys (from June 12 to 19, 2016) for unmarried youths who had graduated from two-year colleges, under the age of 34 and had experience of debt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we look at the debt status of young people who have been returning their current debts, among [Debt at the time of enrollment] the average liability of school expenditure was

5.621 million won and that of living expenses was 1.1 million won. Also, [Debt after graduation] was 3.639 million won. Investigating by age group the 20s were troubled by school expenditures. In addition, in the 30s the debts were increasing in general loans after graduation, while school expenditures were decreasing. As a whole, as the age of the youths increased, the debt also increased. 61.8% of the type of student loans at the time of college were using the post-employment reimbursement system until earning certain incomes. Also, 65.7% of the respondents who experienced the debt after graduation were using the common loans because of living expenses (29.4%), housing expenses (24.5%) and durable goods purchasing expenses (13.%), and 11.8% of them were using the credit card loan services. Most of the debt-reimbursees were themselves, and did not have delinquency. Some delinquencies accounted for the greatest proportion of living expenses and the youth debt problems consisting of [Debt at the time of enrollment] suggests that it was not simply a question of the students, but a lot of living expenses problems.

Second, when comparing between two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 debts were fully paid out, the debt repayment completed group had a high percentage of regular workers with a large number of women, a relatively high age, and a job stability.

As the job stability increased, the monthly average income of [the debt repayment completed group] was higher, and they had more assets than the other. Also, they had less negative attitude to money and liability because of stress relief through the completion of debit redemption. They showed higher financial knowledge, power of execution, and self-assurance. The results of analysis in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debt repayment completed group were as follows. As the age increased and the sole rental households who were not living with their parents, the possibility of belonging to the debt repayment completed group increased. It is highly probable that rented households with relatively stable housing when living with their parents are included in the debt repayment completed.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youth debt is linked to the problem of housing stability.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ng people who were currently repaying debt, it is found that their age, education level, and proportion of regular workers in job security were higher, they earned and spent more money, and their total assets increased. In addition, knowledge and function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age and financial function were main variables in the certain circumstance controlling the other variables. In the

case of [subjective debt repayment possibility], the higher the male, the age and the job stability,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repayment of subjective debt. In the case of financial capacity, the group above the average showed higher possibility of repayment of subjective debt. In the case of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other variables, the more the males, the more negative the attitudes of money and debt, the higher financial knowledge and function execution, the more optimistic the income and business outlook after 5 years, the possibility of repayment of subjective debt was higher. In addition, when there were debt experiences at college, it is found as a negative factor that burdened the possibility of repayment of subjective debt.

To summarize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debt repayment possibility, the possibility of paying off would be higher in the case that a debtor was a male, had a higher age, rented a stable house not living with his or her parents, and did not have too optimistic business outlook. Among those who were currently repaying, only the age and financial function had an influence on the possibility of repayment of objective debt. On the other hand, it was a burden on the possibility of subjective debt repayment if one had debt experiences during the college. The possibility of repayment of subjective debt would be higher in the case that a debtor was a male and had a negative financial attitude, higher

financial function, and optimistic business outlook.

Based on the above results,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f you make policy recommendations, bank loans may already be difficult, as shown in the retaining characteristics of debt. As for the youth debt problem consisting of [Debt at the time of enrollment], it is not merely a question of the student but includes a problem of living expenses,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Jungmuri loan support system related to living expenses for young people even after graduation . In addition, most of the debt pillars at repayment of the debt were principal. It can be said that the youth debt policy is targeted to the youth eventually without reference to households. A policy consideration that can enhance practical skills as an important influence factor is whether financing debts will be completed and the possibility of repaying financial knowledge and the practical ability of attitude as an important influence factor will be helpful in repaying the debt. More support is desirable that can raise moral hazards, not policies, but interest-bearing support for debt repayment such as repayment period can increase practical power.

Second, from an educational point of view, it takes some time for young people to have job stability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uncertainty of income and to consult with them in order to make the debt repayment plan realistic. Also, in terms of [post-graduation loan] debt types, the use of credit card loans accounts for the second. It suggests that you may not be able to understand the conditional interest rate you are trading in, and may be getting convenience loans. Financial knowledge also showed a low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items that measured the second financial interest rate. In financi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help to understand the interest rate correctly.

As a factor affecting the possibility of repayment, we can confirm that financial function capacity which is practice of knowledge and attitude is an important factor. If financial education and counseling are conducted on these subjects, it would be desirable to instruct them to increase their practical skills as well as their knowledge. In addition, the following loan behaviors can easily appear as the psychological behavior of the debts experienced during college in the doorway. If you step into a one-semester loan, you will have a permissive attitude toward money and debt, and even after graduation, general loans can be made continuously. I must include the contents of education so that I do not have an overly tolerant and tolerant attitude toward money and debt.

Third, the psychological aspect of the youth with debt experience suggests that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debt – financing group has decreased as the subjective outlook for the economic outlook is the same as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Excessive optimism may lead to household insolvency in the future, which requires an attitude to raise a realistic perspective rather than over optimism. In the case of the risk acceptance tendency, the tendency was not to favor the most risk of the youth who experienced the debt. Nevertheless, when using lending, it is possible that lending to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difficult, and interest rate comparison and calculation power may fall, as the use of personal credit loans and card loans are relatively hi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ducational compromises such as institutional supplement and interest rate comparison in the system. In the case of self – confidence,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 self – bias tendency to overestimate their ability in the debt compensating group was somewhat higher. Psychological support is also needed to ensure that self – confidence, not self – confidence or belief, is lacking due to stress during debt repayment.

* Key words: Youth debt, Debt settlement, Debt repayment Possibility, Financial capacity, Psychological bias